

03

발행인의 글

04

금능인

금능리 마을이장 연대기
당신은 리더입니다

글 | 양민숙

08

금능인

금능원담 지킴이 이방익 할아버지
바다가 내어준 것에 보답하듯 오늘도 바다를 돌본다

글 | 이윤영

12

금능인

4대가 한 마을에 사는 가족
4대가 한집에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유안이네 가족

글 | 김순일

16

금능in

배령연대
견고하고 지혜로운 금능마을의 기념물

글 | 이윤영

18

금능in

용천수
그 시절 용천수를 소환합니다

글 | 양민숙

20

금능in

사진찍기 좋은 금능마을의 명소들
시간과 날씨가 만들어 내는 금능해수욕장의 아름다운 변신

글 | 김순일

24

금능인계

세대별 대담
유년시절, 재릉국민학교 가던 길

글 | 양민숙

32

금능인계

특집
금능원담축제 이야기

글 | 한명희

40

금능인계

금능길
제주올레 14코스 속 금능마을

글 | 김순일

44

금능인계

금능밥상
금능 원담에는 김이가 살고 있습니다

글 | 양민숙

48

금능인계

금능갤러리
금능 옛집들

글 | 안민승

50

금능스케치

키워드로 만나는 금능
정리 | 양민숙

52

금능스케치

2020년 금능리 마을행사 일정표
정리 | 금능리

53

금능스케치

2020년 꿈차통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일정표
정리 | 편집부

54

금능스케치

금능리 조직도
제공 | 금능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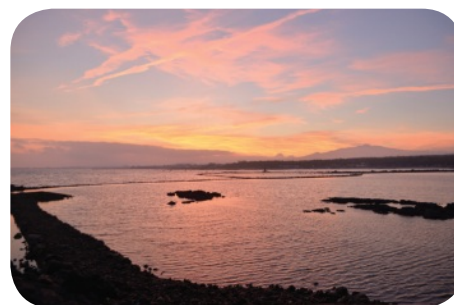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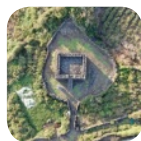
55

금능스케치

금능마을 지도
그림 | 안민승

56

편집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들

발행인 | 김성수 (금능리장·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장)

마을소식지 『금능인』이 세 번째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진행했던 어버이날, 원담 축제, 마을운동회가 취소 되었고, 꿈차롱작은도서관도 아주 오랜 시간을 휴관해야만 했습니다. 일상적이었던 생활이 일상적이지 않음이 되어버려서야, 그동안 얼마나 감사한 환경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었는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금능인 3호』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금능리를 이끌어 온 역대이장 연대기, 4대가 금능리에 살면서 따뜻한 가족애를 나누는 이야기, 원담을 지키는 이방익어르신 이야기, 재릉국민학교의 추억여행, 우리 마을의 보물인 원담축제, 배령연대, 용천수 이야기, 오랜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한 마을의 옛집들, 사진 찍기 좋은 마을의 명소, 올레코스로 바라보는 금능 이야기, 그리고 오래도록 우리의 먹거리였던 '깅이' 이야기까지 우리가 이토록 아름다운 금능리에 살



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풍성한 내용으로 정성스럽게 엮었습니다. 그만큼 편집위원들의
노고도 컸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얻기 위해 많은 발걸음을 하였고, 한 줄의 글을 쓰기
위해 몇 잠을 설쳤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공감하며 그리고 응원하며 읽어주시길 부
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편집위원들의 인터뷰에 흔쾌히 협조해 주신 금능리민들께도 지
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제보다 조금은 나아진 오늘을 기대하지
만 하루하루 다양한 변수로, 어쩌면 어제보다 힘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걸어갔으면 합니다. 힘든 한 해, 힘들게 하루를 버티고 있는 우리, 묵
묵히 앞으로 내딛는 발자국에 분명 희망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건강하게 지혜롭게
오늘을 건디며 한 해를 마무리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도서관에, 우리 마
음에 더 좋은 소식이 가득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해 봅니다.

사진 © 양성혁





금능인



당신은 리더입니다

글 | 양민숙 · 사진 | 양성혁

금능리 마을이장 연대기





금능리



들어가며

—

당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꿈꾸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성과를 얻도록 고무한다면, 당신은 리더이다.

존 퀸시 애덤스의 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양한 공동체를 통해 존 퀸시 애덤스의 말처럼 진정한 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지도자를 만나왔다. 진정한 지도자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어떤 공동체든 지도자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고,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 흔히 우리는 지도자의 마인드나 가치관에 따라 공동체의 발전 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 특히 마을공동체의 지도자인 ‘마을리장’은 그 경우가 더하다. 재임 기간 동안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마을을 이끌어오 잘했다는 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리장과 함께 한다면 리민들은 행복하다. 금능리는 지금의 ‘리장’ 제도가 있기 전 마을의 대표 격인 경민장(警民長)이 있었는데 리장 역할과 경찰의 역할까지 도맡았다고 하니, 지금의 리장보다 더 책임감이 컸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이후는 1구와 2구로 나뉘어 각각 구장(區長)이 있었다. 마을에 ‘리장’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는 1942년 제 1대 서기흥 이장부터다.

금능리장의 임기는 아래의 표처럼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현재 금능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기한 내 ‘금능리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한 후보자 중에 마을투표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지금 김성수 이장은 28대 이장으로 지난 27대에 이어 무투표당선, 재임 중에 있다. 올해 금능리는 ‘어촌테마마을조성사업’으로 향후 5년 동안 진행될 예산, 98억원을 확보했다. 마을의 경영, 마을리민들의 복지, 마을의 발전계획까지 모두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지도자로서, 이장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금능인』 이번 호에서는 금능리 역대 이장들을 재조명해보고, 그분들과 마을의 발전과정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작고하신 분들이 대다수라 그 당시의 마을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림읍지’와 보도자료 그리고 마을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진 자료, 몇 분의 역대 이장님 등을 통해 정리한 마을이장 연대기는 완성이라기보다는 더 늦기 전에 정리할 필요성에 의해 작성이 되었고, 추후 리민들의 제보를 통해 관련 자료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역대 이장 연대표

代數	里長	在任期間
1	서기흥	1942년 1월부터 1942년 12월까지 재임
2	송영진	1943년 1월부터 1943년 12월까지 재임
3	박행길	1944년 1월부터 1945년 12월까지 재임
4	박행익	1946년 1월부터 1947년 12월까지 재임
5	문경원	1948년 1월부터 1949년 12월까지 재임
6	양두윤	1950년 1월부터 1952년 12월까지 재임
7	김인현	1953년 1월부터 1958년 1월 15일까지 재임
8	양사현	1958년 1월 16일부터 1962년 1월 15일까지 재임
9	문익순	1962년 1월 16일부터 1963년 7월 8일까지 재임
10	양문수	1963년 7월 9일부터 1964년 4월 30일까지 재임
11	문성직	1964년 5월 4일부터 1968년 3월 31일까지 재임
12	고일백	1968년 4월 1일부터 1970년 8월 21일까지 재임
13	양창효	1970년 9월 1일부터 1971년 11월 31일까지 재임
14	박행길	1971년 12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까지 재임
15	송성규	1975년 1월 1일부터 1978년 12월 31일까지 재임
16	문두길	1979년 1월 1일부터 1979년 6월 30일까지 재임
17	양홍재	1979년 7월 1일부터 1985년 4월 1일까지 재임
18	이치행	1985년 5월 25일부터 1989년 9월 5일까지 재임
19	함무창	1989년 9월 6일부터 1996년 10월 30일까지 재임
20	이학성	1996년 10월 31일부터 1998년 4월 8일까지 재임
21	김번행	1998년 5월 14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재임
22	이제형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재임
23	손영구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재임
24	이창훈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재임
25	문익수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임
26	고명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임
27	김성수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재임
28	김성수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 재임 중



역대 이장 활동기

제07대 이장 김인현	금능마을체육대회 개최 시작으로 추축, 일제 강점기 때 중단되었던 금능마을제 를 다시 개최한 것으로 추축
제10대 이장 양문수	사방조림 조성
제14대 이장 박행길	금능마을 안길 조성 시작, 양어장 조성, 모살 오동나무 밭 조성
제15대 이장 송성규	금능마을 안길 조성 마무리
제17대 이장 양홍재	취락구조 조성
제19대 이장 함무창	구 리사무소 2층 증축, 금능농공단지 조성
제22대 이장 이제형	금능리민속보존회 결성, 제41회 탐라문화제 걸궁 부문 최우수, 제42회 탐라문화제 민속예술경연대회 장려, 국제도시 자립 마을 선정, 금능리 풀장 및 금능해수욕장건물 신축, 금능잔디광장 조성
제23대 이장 손영구	금능리복지회관 착공, 금능새마을문고 전국독후감대회 최우수 수상
제24대 이장 이창훈	제1회 금능원담축제 개최, 제주시 참살기좋은마을 선정, 장수마을 선정, 금능으뜸원해변 으로 해수욕장 공식 지정, 금능곰차롱작은도서관 개관, 마을 운동장 조성, 마을 운동장 진입로 조성, 금능리복지회관 준공
제25대 이장 문익수	마을해안도로 사업 착공, 마을 시화문패사업 진행, 곰차롱작은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회원도서관 승인, 곰차롱작은도서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터전 승인, 곰다락도요학교 선정
제26대 이장 고명관	커뮤니티비즈니스(C/B)마을 선정, 마을소식지 금능인 창간호 발간, 금능 차롱길 조성(도서관문학길, 생태미술길), 제주설화그림책 발간, 금능리 어르신 시집 발간, 마을신문 꿈꾸는 금능 발간, 마을어린이 음반 고사리약보의 행진 제작, 곰차롱작은도서관 농어촌희망재단 사업 선정
제27대 이장 김성수	제4회행복마을만들기콘텐츠 동상 수상, 해수욕장 야간 조명등 설치, 금능곰차롱작은도서관 10주년기념식 진행, 마을행복학습센터 운영기관 지정, 달차롱인형극단 창단, 금능리 게이트볼 동호회 창단
제28대 이장 김성수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 금능리문화복지센터 준공, 곰차롱시인학교 운영

나오며

마을의 발전과 안녕은 마을리민들의 따뜻한 협조와 적극적인 관심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을 때 마을의 지도자인 ‘이장’은 더 열정적으로 마을 일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부족한 자료만으로 용기를 내어 ‘금능리장 연대기’를 정리해 보고자 함은, 결국 지금의 ‘금능리’를 만들어 온 진정한 지도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금능리는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다.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존경을 표한다. 서·인



금능인

바다가 내어준 것에 보답하듯 오늘도 바다를 돌본다

글 | 이윤영 · 사진 | 한명희

금능원담 지킴이 이방익 할아버지





금능



매일 원담에 나와 흐트러진 돌담을 정비한다. 할아버지는 일명 원담 할아버지라 불리는데, 자발적으로 으뜸원 해변의 원담을 관리하고 있어 붙은 별명이다. 금능리가 아니더라도 제주에는 많은 원담이 존재한다. 그러나 뭉개지고 흐트러진 다른 지역의 원담과 달리 이곳의 원담은 할아버지 덕분에 그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제주 금능 해변에 대형 원담을 만들고 오랫동안 이를 지켜온 오늘의 주인공 이방익 할아버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원담을 친구 삼아 살아온 65년

올해 89세로 원숭이띠인 이방익 할아버지는 금능에서 태어나 금능리 1384에서 평생 살아왔다. 딸은 없고, 아들만 5형제로 자식들 밥은 굶기고 싶지 않아 고생을 많이 했다. 공부를 못해서 자식들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대학교에 2명 졸업시키느라 힘이 들었지만, 지금은 5형제가 모두 가정을 꾸려 이제는 제법 넉넉한데도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싫다'며 한사코 자식들의 용돈을 거부한다. 가족을 향한 수고와 헌신의 세월 원담 덕분에 모든 힘들었던 일을 극복해 나갔었고 애들 학교 보내고 장가 다 보냈기에 애착을 안 가질 수가 없다. 아파도 자기 아픈 것은 생각 안하고 원담 보러 가라고 자식들에게 이야기 한다.

청년 시절 한림면 뜰돌 선수로, 18세 때 비양도를 헤엄쳐 왕복할만큼 혈기 왕성하신 분이셨다. 동네 어르신들이 만들었다 허물어진 '원담'에 군대 다녀와 주목하게 된다. 2년 동안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 거대한 3개의 원담을 만든 그는 89세가 된 지금까지도 원담을 지켜오고 지켜보다 키운 꿈이 평생 원담지이다.

늘 같은 마음으로 65년째 원담을 둘러보며 지키고 보존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 고기 잡으러 갔다가 돌이 무너진 걸 발견하면 집에 가서 장갑을 챙겨서 원담 보수에 열을 올리신다. 원담 보존하는 일이 금능마을이 행복해지는 일이라 생각해 지금까지 하게 되셨단다.

할아버지의 일상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원담을 둘러 보시는데 오늘은 10시 30분쯤 원담을 돌고 오셔서 집 밖 평상에 앉아 동네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고 계셨다. 날짜만 들어도 머릿속에 물 때 시간이 다 입력되어 있어서, 달력을 안 봐도 물때시간은 환하고 정확하시다고 하신다. 특히 원담에 다섯, 여섯물 6-7월에 멜(멸치)이 가장 잘 든다고 알려주셨다.

금능 마을에서 이미 원담 할아버지로 유명세를 타고 계시기에 타 방송에서 원담 할아버지 삶을 취재해서 방송되기도 할 정도로 금능에서 원담 할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방송 촬영을 하면 할아버지 불일을 제대로 못 본다면 살짝 불만을 토로하셨지만, 금



능 마을 소식지인 금능인 3호의 원담 할아버지 이야기를 인터뷰하러 온 나의 방문이 싫지만은 않은 내색이었다. 푸른 빛으로 반짝이는 바다와 그 속에 소담히 자리한 원담이 한 눈에 보이고 원담 한가운데 물고기를 안고 서 있는 원담 할아버지 석상은 군에서 만들어 주셨다고 하셨다. 원담 할아버지 이름이 동상에 새겨져 있어 할아버지 상을 볼 때마다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하셨다.

할아버지의 멜(멸치) 나눔

이방익 할아버지는 제주도 말로 원(담)에 물이 밀려올 때는 고기가 놀다가 갇히면 고기를 잡기도 하고 작은 거는 살려도 주었다. 원담 수확이 별로 없는 날에도 애써 잡은 고기를 동네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나눠주는 이방익 할아버지. 이곳 원담에서 잡히는 멜(멸치)은 그물로 잡는 멜 보다 인기가 있다. 그물로 잡는 것 보다 품질이 좋아 지금도 다른 지역에서 멜을 사러 오기도 한다.

그리고 멜(멸치)을 잡으면 소금에 버무려 단지에 넣고 젓다가 먹으라고 동네 할머니들 보이면 힘들게 잡은 멸치를 나눠주신 단다. 멜로 젓갈도 담그고, 햇벌에 말려 멜 조림도 해서 먹으면 맛있다고 팁을 주신다. 동네사람 나눠 줘야 복 받고 큰 사람이 된다고 혼자 먹으면 안 되고 늘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단다.

원담 축제의 주인공

원담은 마을 공동 소유이므로 원담을 쌓거나 보수하는 작업도 마을이 함께한다. 다른 지역과 달리 이곳 원담의 원형이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원담을 관리해 온 이방익 할아버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방익 할아버지는 군대를

제대한 후 27세부터 65년 동안 이곳 원담을 관리해 오고 있다. 원담을 돌보는 이방익 할아버지의 정성 덕분인지, 금능리 원담은 제주도에서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원으로 불린다. 금능리는 사라져가는 원담을 지키고 보존해 널리 알리고자 마을 자체적으로 2008년 금능 원담축제를 열었다.

“나는 눈이 빨라, 고기 잡는 건 최고야.”

군에 가셔도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건 군대 상사가 인정해줄 만큼 솜씨가 좋았다고 하신다. 해마다 금능 마을 원담 축제에 하이라이트 맨손으로 물고기잡이에서 늘 할아버지의 시범 물고기잡이 퍼포먼스가 있고 나서 행사가 시작된다.

손재주 좋은 할아버지

“나는 뭐든지 만드는 건 다 만들어. 못 만드는게 없어”라고 이야기하시며 다 완성된 태왁 바가지를 꺼내 보여주신다.

주어온 노끈으로 만든 바구니, 바다에서 떠밀려온 스티로폼으로 태왁을 만들기 시작한 할아버지의 업사이클링 소품들이다. 손재주가 좋아보니 소문이 나서 시에서 큰 상회를 운영하는 할머니가 태왁을 상점에 걸어놓으면 큰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일부로 찾아와서 태왁 19개를 주문한 걸 계기로 태왁을 소일거리로 만드시게 되었다고 하신다. 제주도 말로 “소망한다고”(돈이 잘 들어온다)면서 담에 오면 하나 만들어서 선물해 주신다고 하셨다.

집안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없을 만큼 할아버지 솜씨가 정말 기가 막힌다. 만드는 법을 따로 배운 적은 없지만, 옛날 할아버지 하는 것을 보고 머리를 써서 만들다보니 점점 입소문이 나서 할아버지가 만든 소품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태왁 몇 개는 예비로 만들어 두신다.

탐라문화제 행사 때는 직접 산에 가서 소나무를 가져다가





금능



만든 족바지를 소품으로 빌려주고 함께 족바지를 들고 참여하셨다고 한다. 족바지도 할아버지의 세월만큼이나 낡아 나무를 덜 대어 보존관리 하시며 지금도 뿔이 원담 안에 들면 족바지를 들고 나가신다고 한다.

표창장은 나의 보물!

“난 상장 하제. 나 상장서” 하며 자랑스럽게 안방으로 들어오시며 행복한 목소리로 할아버지의 상패 표창장을 꺼내신다. 옛 선조들의 원담을 지키고, 원담 보수에 애를 쓰셔서 금능 마을 이장님과 리민일동 표창장을 2번 받으셨다.

82살까지 마을에 제청도 해마다 참석해서 할아버지가 알고 있는 노하우도 전수해 주셨다고 한다. 마을의 대소사 일을 다 들여다봐서 마을사람도 인정해서 주신 상이라 더 좋아하셨다. 그 외에도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 하고 세계로 가는 제주에 원담을 잘 지키면서 제주시장으로부터 받은 상장, 그리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42회 탐라문화제 민속 예술부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쓰셔서 공로를 인정받은 상장을 소중한 보물로 여기시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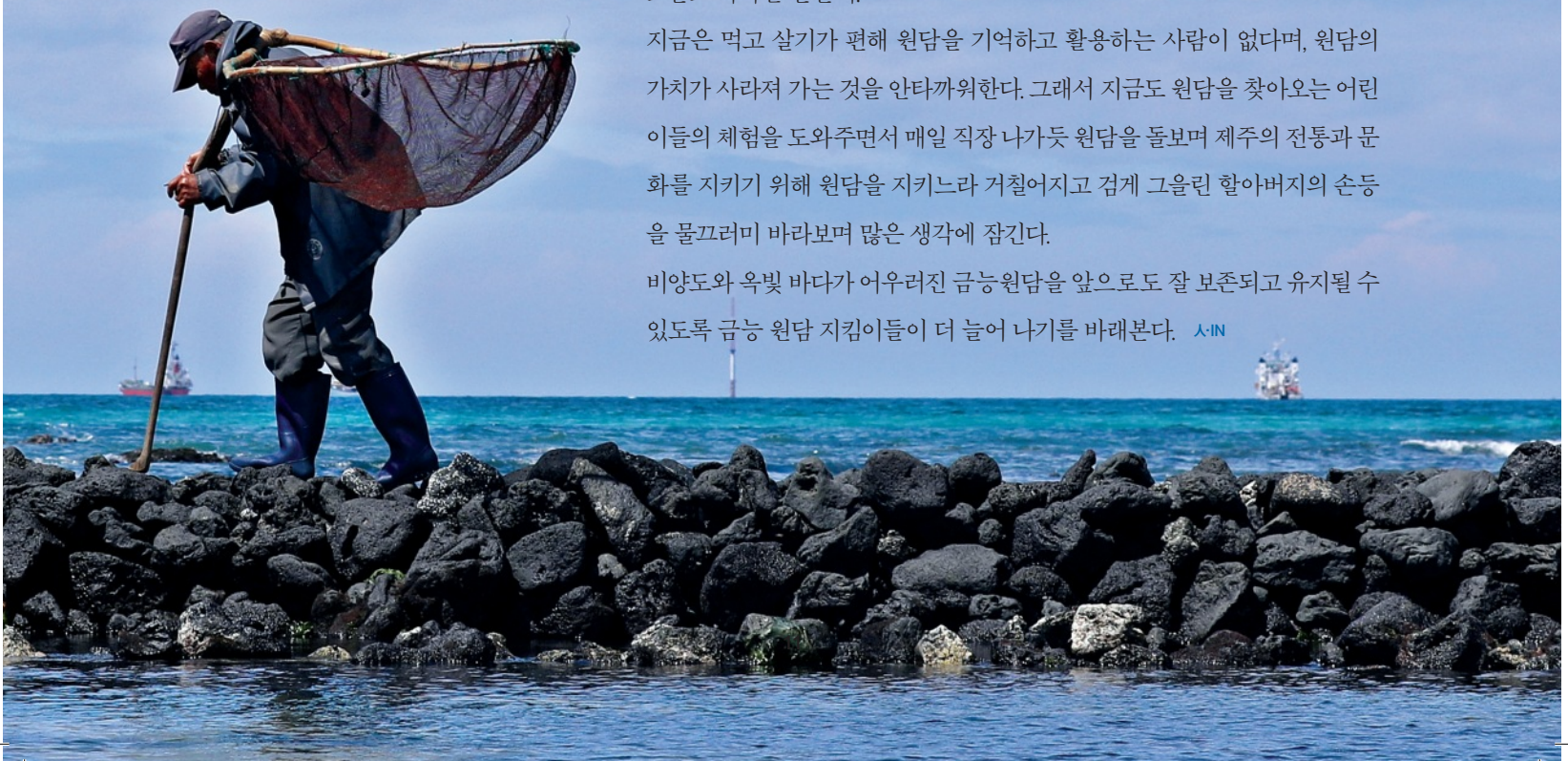
상패 말고도 종이 상장도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글자가 지워져 지금은 없지만, 할아버지 마음속에는 남아 있다고 하셨다.

맷으며

바다는 한없이 내어준다고 했던가. 그간 바다에서 무언가를 얻어가고 즐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바다가 내어준 것에 보답하듯 오늘도 바다를 돌본다.

지금은 먹고 살기가 편해 원담을 기억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없으며, 원담의 가치가 사라져 가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그래서 지금도 원담을 찾아오는 어린 이들의 체험을 도와주면서 매일 직장 나가듯 원담을 돌보며 제주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원담을 지키느라 거칠어지고 검게 그을린 할아버지의 손등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긴다.

비양도와 옥빛 바다가 어우러진 금능원담을 앞으로도 잘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금능 원담 지킴이들이 더 늘어 나기를 바래본다. [A-IN](#)





금능인

4대가 한집에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유안이네 가족

글 · 사진 | 김순일

4대가 한 마을에 사는 가족





금능사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대한민국의 전체 가구 수 중에 1~2인 가구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 58.3%라고 한다. 2040년엔 7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런데 금능마을에 4대가 모여서 한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유안이네 가족이 있다. 유안이네 가족은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기에 4대가 함께 모여서 화목하고 행복한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자.

4대가 함께 살게 된 이야기

유안이네 집은 증조할아버지의 할아버지보다 더 오래전부터 금능마을에 살기 시작했다. 지금 유안이네 집의 식구는 총 7명이다. 91세이신 양이숙 증조할아버지가 가장 큰 어른이고, 양승우 할아버지와 박정순 할머니, 그리고 양공남 아빠와 박선희 엄마, 누나 양유은이 유안이네 집에 함께 산다.

유안이네 집은 재릉초등학교 때문에 한집에 모여 살게 되었다. 아빠와 엄마가 결혼 후에 제주시에 살면서 유은이 누나와 유안이를 낳았고, 유은이 누나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에 아빠와 엄마는 유은이 누나와 유안이가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빠와 엄마처럼 재릉초등학교를 다니기를 원했고, 그래서 금능리로 다시 돌아와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 증조할아버지는 재릉초등학교가 개교하기 전이라 동문이 될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는 재릉초등학교 14회 졸업이고, 할머니 16회, 아빠와 엄마는 6년동안 같은 반이었던 동기동창으로 40회 졸업생이었다. 누나 유은이가 졸업하면 69회 졸업생이 될 것이고, 유안이는 72회 졸업생이 될 것이니 3대의 모든 가족이 같은 초등학교 선후배가 되는 것은 어디에서도 흔히 보기 어려운 역사적인 일이다.

화목이 가장 중요한 힘

4대가 함께 사니까 좋은 점을 꼽으라고 물으니 유안이네 가족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화목'을 꼽는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 지킬 것을 지키며 살면 가족 모두가 화목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유은이와 유안이를 매일 볼 수 있어서 좋고, 그렇게 매일매일 가까이서 보며 사니 더욱 화목해질 수 있다고 한다.

증조할아버지 밑으로 가족이 모두 모이면 60여명, 할아버지 밑으로 가족이 모두 모이면 20여명이 된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양승우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단합이 아주 잘 되고 있다. 명절이 되면 60여명의 가족이 유안이네 집으로 모두 모여서 순서대로 세배를 하면 1시간이 넘게 걸린다. 순서를 정하고 세배를 하는 것이 떠들썩한 일이지만 가족들에게는 재미있고 신





금능인



1대 양이숙 증조할아버지 (91세)

4대 양유은 누나 (12세)

4대 양유안 (9세)

나는 일이라고 한다. 그렇게 세배가 끝나고 나면 하루를 꼬박 신나게 논다고 한다. 또 농사를 지으며 손이 많이 필요할 때는 대가족이 일사불란하게 모두 동원되어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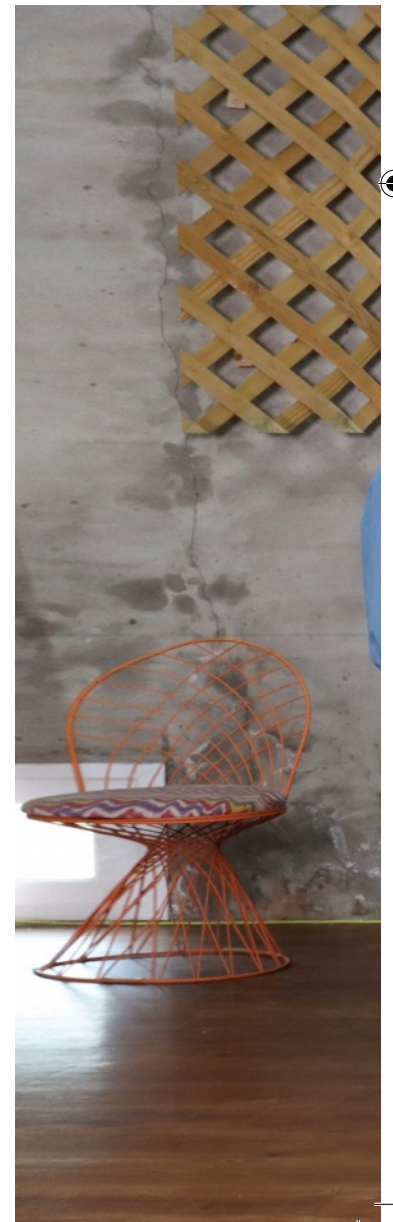
손주에게 물려주고 싶은 금능마을

양승우 할아버지는 “깨끗한 공기와 물이 있고, 인심과 경치가 좋고, 산과 바다가 바로 가까이 있는 금능마을에서 가족이 모두 함께 살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조상들이 금능마을을 우리에게 잘 물려 준 것처럼 우리도 금능마을을 잘 지켜서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유은이와 유안이를 비롯한 모든 후손들도 금능마을을 잘 지켜 갈 것이다”라고 말한다.

양공남 아빠는 “어른들이 가족 간에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함께 살면서 삶에서 보여줘야 아이들이 그런 삶의 방법을 보고 배우게 되고, 자연스럽게 화목한 삶을 살수 있다”고 말한다.

유안이는 “매주 월요일이 되면 재릉초등학교에 가는 것이 매우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한다. 아빠와 엄마의 현명한 선택 덕분에 유은이와 유안이는 금능마을에서 사는 것이 참 행복하다.

금능마을에서 4대가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유안이네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서로가 지킬 것을 지키면 화목해 진다’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4대가 함께 사는 유안이네 가족을 통해 또다른 화목한 대가족이 더 많이 생겨나길 기대해 본다. **▲IN**





금능사



3대 양공남 아빠 (41세)

3대 박선희 엄마 (40세)

2대 양승우 할아버지 (67세)

2대 박정순 할머니 (65세)





배령연대

글 | 이윤영 · 사진 | 양성혁

금능인





금능 in



견고하고 지혜로운 금능마을의 기념물 배령연대



배령연대(盃令煙臺)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1649번지에 있는 연대이다. 1996년 7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념물 제23-19호로 지정되었다.

봉수와 연대는 조선시대 제주의 통신시설로 봉수는 산, 오름 같은 정상에, 연대는 해안 같은 곳에 세웠다.

봉수는 밖의 먼 바다를 관찰해야하고, 연대는 다가오는 배가 적선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했다.

연대는 횃불과 연기를 이용하여 정치·군사적으로 급한 소식을 전하던 통신수단을 말한다. 봉수대와는 기능면에서 차이가 없으나 연대는 주로 구릉이나 해변지역에 설치되었고, 봉수와 연대의 통신 방법은 낮에는 연기, 밤에는 횃불로 했다고 한다.

거화 의식은 다섯 단계로 나뉘어 평상시 1개, 수상한 선박 발견 시 2개, 선박이 다가오면 3개, 상륙하면 4개, 전투가 벌어지는 5개를 올리는데 이것을 오거법이라고 한다. 날씨가 좋지 않을 시에는 봉군이 직접 뛰어갔다.

배령 연대는 금능마을의 서쪽 해안으로 튀어나온 연대동산에 자리하고 있으며, 명월진에 소속되었다. 배령연대는 평면이 원형에 가까워 원래는 둥근 모양의 석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복원 당시 사각형 연대로 만들어 버렸다.

이 연대에는 별장 6명, 봉군 12명이 배치되어 한 달에 5일씩 6교대로 24시간동안 해안선을 지켰다고 하며, 동쪽으로 마두 연대, 서쪽으로 대포 연대와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견고하고 지혜롭게 왜군으로부터 방어했던 조상들의 지혜를 본받아 아이들이 국방의 의무의 중요성 및 애국심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ㅅ-IN





금능인

그 시절 용천수를 소환합니다

글 | 양민숙

물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이다. 그러기 때문에 옛날부터 사람들은 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하여 살았다. 물의 양에 따라 마을의 규모도 결정되었다고 한다. 물의 양이 적으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어 살았고, 물의 양이 많으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어 살았다는 것이다. 제주에서 마을 사람들이 이용했던 물중에 대표적인 것이 용천수다. ‘용천수’를 지식백과에 검색해 보면, ‘빗물이 지하로 스며든 후에 대수층을 따라 흐르다가 암석이나 지층의 틈새를 통해 지표로 솟아나는 물’이라고 나와 있다. 층층이 페스트리 겹처럼 쌓인 지층을 따라 흐르다 솟은 물이 용천수인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만나는 용천수는 이 과정에서 불순물이 걸러진 자연수라고 할 수 있다. 제주사람들에게 용천수는 생명수임과 동시에 식수, 생활수, 목욕수 등 다양한 용도로 이로움을 주었다.

용천수를 이용할 때 마을사람들은 엄격한 규율을 정해놓는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마을 규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지만, 언제부터 누군가에서부터 내려오던 남자용 용천수, 여자용 용천수가 존재했던 것이다. 지금 제주의 마을을 돌다보면 용천수에 담을 쌓아 ‘남탕’, ‘여탕’이라고 자연목욕탕을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은 이치다. 어느 마을이나 이렇게 집 안이 아닌 집 밖에서 몸을 씻어야만 했던 시절, 변변한 칸막이 하나 없었지만 여자가 이용하는 용천수와 남자가 이용하는 용천수를 구분해 놓았다는 것만으로도 한국 고유의 문화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온전한 용천수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다. 산간지역 개발과 도로 개설로 자연 용천수 수량이 감소하였고 점점 용천수가 파괴되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집집마다 가정용 수도가 생기면서는 굳이 용천수까지 가는 수고로움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관리의 소홀문제로 경계가 사라졌다고나 할까? 이제 사람들에게 용천수는 조금은 거리감이 생긴 용어가 되었다. 행정에서 용천수에 대한 보존이 필요하다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복원작업을 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고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금능 용천수는 사람들과 얼마나 가까운 존재였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능마을 바다에서는 곳곳에서 뽀글뽀글 지표로 솟아나는 단물을 만날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렸을 때 친구들과 수영을 하다가 이 용천수에서 몸을 씻고 뜨거운 바위 위에 누워 몸을 굴리며 말리던 시절, 용천수는 친구들과는 뭔가 비밀의 장소로 통하곤 하였다. 여자 아이들 사이에서는 목욕을 할 때 멀리서 누군가 담 구멍으로 훑쳐본다는 이야기도 돌았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 까지 오르내리곤 하였다. 정확한 의미도 모른 채 ‘변태’라는 단어를 쉽게 입에 올리던 때였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적절한 단어였다는 생각을 해 본다. 옷을 벗고 목욕을 할 때마다 한 명씩 망을 보기도 하였는데, 혼자 떨어져 망을 볼 때에는 넓은 바다를 배경으로 상상의 날개를 펼치곤 하였다. 바다에서는 옷을 걸치는 것이 거추장스러웠다. 목욕을 하고 고도 한참을 바위 위에서 벌거벗은 채로 몸을 말리곤 하였다. 남자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그게 바다생활의 일





湧泉水

부였으므로, 알몸에 대한 호기심과 민망함보다는 자연스런 과정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몸을 말리는 동안 입었던 옷가지도 용천수 물에 깨끗하게 빨아 뜨거운 바위 위에 함께 말렸다. 조금 더 나이가 들었을 때에는 옷을 입은 채로 목욕을 하였고, 또 옷을 입은 채로 뜨거운 바위 위에서 몸을 찼었다. 강한 햇살에 달구어진 넓직한 바위들은 젖은 옷과 몸을 말리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뜨거운 여름, 뜨거운 바위 위에서 전해지던 열기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뜨거움으로 남아 있다. 바다 곳곳에서 해염을 치거나 해산물을 잡아어도 결국 모이는 장소는 용천수 근처였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바다에 들어갔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몸을 씻고 들어가야 했던 아이들은 결국 저물녘 용천수까지 찾으러 온 부모님에게 잡혀 들어가기도 하였다.

엄마들은 용천수에서 살림의 목은 때도 벗겨냈지만, 가슴 깊숙이 자리 잡은 ‘화병’의 목은 때도 벗겨냈다. 제주의 여성들은 예로부터도 억척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다일도 모자라 밭일까지 잠시도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편히 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 그러니 서로서로 마음을 풀고 한풀이하는 시간으로 용천수에서의 빨래하기는 오히려 쉬어가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엄마들이 잔뜩 쌓인 빨래더미를 들고 용천수로 모여든 날이면 마을 입구까지 빨래방망이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흡사 엄마들의 한을 내리치는 소리처럼 경쾌하기보다 무거웠다. 한바탕 방망이를 ‘탕 탕 탕’ 내리치고 가슴 속 이야기를 서로서로 꺼내어 나누다 보면 돌아가는 길, 젖은 빨래의 무게만큼 마음 속 무게는 반비례로 가벼워졌다. 물론 이 빨래하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일하기에 바빠서 빨래당번이 거의 집안의 어린 딸한테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어린 딸들은 자신의 몸 보다 더 큰 빨래바구니를 들고 용천수로 자주 향했다. 가끔 밀물이 되어 빨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짜면, 어린 딸들은 ‘정구수’로 향하였다. 정구수는 바닷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밀물의 피해를 가장 적게 받는 용천수였다. 굴 속에 있어서 여름 뜨거운 햇볕 걱정 없이 빨래방망이질을 할 수도 있다. 물도 흐르는 길이 있다는 옛 할머니의 말씀처럼 실제 정구수에서 빨래를 하다 놓쳤는데, 며칠 후 심방물 용천수에서 그 빨래가 나왔다는 말을 금능마을에서는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시간의 힘은 크다. 많은 것을 잊게 만들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 이 거대한 시간 앞에서 우리에게 용천수의 존재는 이미 기억에서 잊힌 지 오래다. 다행히 용천수를 복원하여 길이길이 보존하자는 취지의 공사가 잇을 만하면 한번 씩 진행되고 있다. 감사한 일이다.

손미나의 산문집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가는 길이 꽃길이다』에 보면 승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승마란 기승(말을 타는 일)을 위한 준비부터, 말을 타고 난 다음 마구간에 데려다 놓는 것까지를 다 포함해요.” 라고 말하는 프랑스인 승마코치의 말은 우리의 삶과 행동을 되돌아보게 한다.

한국 사람들은 승마를 위해서 한동안 말에게 여물을 먹이거나 씻기고, 안장을 채우는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 그 일은 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기에 승마를 준비된 말에 올라타서 달리는 법을 배우는 활동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용천수 보존도 승마의 준비과정과 다름이 없다. 용천수는 자연의 흐름이다. 사람들이 자연에게 준만큼 그대로 우리에게 돌려준다. 용천수를 복원하고 지켜나가려면 담을 올리고 단단하게 시멘트를 덧발라 놓은 것부터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용천수의 흐름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삶의 대부분을 보냈던 추억까지도 함께 보듬어야 할 것이다. 그 시절 ‘용천수’를 소환해 보는 일, 바로 나부터 시작해보려 한다. A-IN



금능인

시간과 날씨가 만들어 내는 금능해수욕장의 아름다운 변신

글·사진 | 김순일

사진찍기 좋은 금능마을의 명소들

‘변수(變數)’라는 것이 있다. 어떤 상황의 결과를 가변적으로 다양하게 만드는 요인을 말한다. 금능에는 참 아름다운 곳이 많다. 그런데 금능의 아름다운 그 곳이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매일매일 시시각각의 아름다운 모습이 변해 간다. 시간에 따른 태양과 바다의 변화, 그리고 하늘과 구름이 그려내는 변화까지 수많은 변수가 있다. 이제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금능해수욕장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자.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비양도

사진 | 금능리에서 바라보는 비양도는 「어린왕자」에 나오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닮았다.

금능해수욕장에서 탄식을 자아내게 만드는 아름다움의 요소가 매우 많다. 그 중에 손에 꼽으려면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번째는 비양도의 모양이다. 금능해수욕장에서 쪽빛 바다를 건너 보이는 비양도는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왕자」에 나오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닮았다. 이웃한 마을인 협재리나 월령리에서 비양도를 바라보아도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처럼 보이지 않는다. 금능해수욕장과 금능포구에서 바라보는 비양도의 모습만이 어린왕자의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의 형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사진) 또 금능해수욕장의 북쪽 끝에서 바라보는 비양도의 모습과 금능포구에서 바라보는 비양도의 모습이 각각 차이가 있고, 그 매력도 다르다.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비양도의 모습이 궁금하다면 지금 카메라를 들고 그 곳을 가보자.





금능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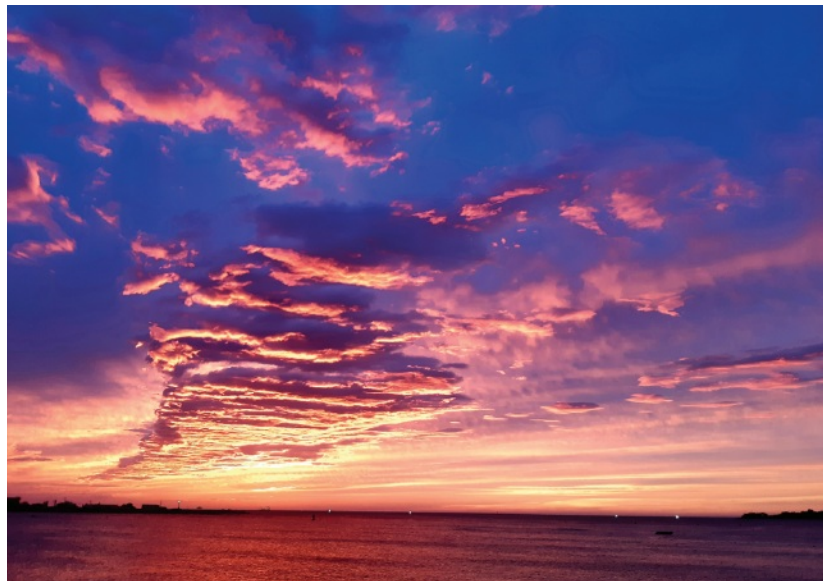
하늘에 그려진 구름 그림

두번째는 하늘과 구름이다. 금능해수욕장에서 바라보는 풍경 중 절반은 하늘이다. 햇별이 화창한 날 금능해수욕장의 모래가 맑은 바다와 어우러져 쪽빛 색을 내고, 구름 한점 없이 맑은 하늘을 선물하는 날 (위 사진)에는 모두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든다. 또 태양의 빛에 따라 다양한 형상의 아름다운 구름이 하늘에 수놓아지고(아래 사진), 하늘과 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날은 금능리를 찾은 관광객 뿐 아니라 매일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금능리 주민들도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게 만든다.

사진 | 구름 한점 없는 금능의 하늘과 바다가 조화를 이룬 날.



사진 | 다양한 형상의 구름이 금능의 하늘을 수놓는다.





숨바꼭질하는 모살밭

사진 | 축구장 12개 면적의 금능해수욕장의 모살밭
(드론 사진 촬영 양성혁)

세번째는 모살(모래)이다. 금능해수욕장은 물때에 따라서 모살밭의 크기가 20배까지 차이가 난다. 금능리를 만조 때 잠시 지나가는 누군가에게는 그저 작은 모살 언덕이 있는 해수욕장으로 기억될 것이다. 하지만 몇시간이 지나면 금능해수욕장의 아름다운 모살밭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다. 금능해수욕장의 모살밭에서는 최대 간조일때는 직선거리 300m 이상 바다로 걸어 나갈 수 있고, 축구장 12개의 면적까지 모살밭이 형성이 되니 간조 때 형성되는 금능해수욕장의 모살밭을 모르고 금능해수욕장을 다녀갔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간조 때 파도가 그려 놓은 모살밭에 작은 패턴들을 맨발로 하나씩 하나씩 밟으며 모살밭을 거닐어 보는 것은 금능해수욕장의 기본 코스이다. 시간에 따라 숨바꼭질하는 모살밭을 기다렸다가 꼭 만나보고 가야 한다.





금능 in



Tip 1

금능해수욕장 100배 즐기기

준비물 | 캠핑의자, 채광 잘되는 모자, 선글라스, 시원한 커피

미리 알아볼 것 | 일기예보(맑은 날씨), 물때(간조시간)

금능해수욕장을 100배 즐기고 싶다면 바닷물이 빠지는 간조 때 캠핑의자를 들고 300m를 걸어 나가 살랑살랑 치는 파도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잠시 귀로 들리는 파도 소리와 파도에 밀려 발가락 사이로 들어오는 모래의 간지럼을 느끼며 커피 한잔을 마셔 보자. 평생동안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다. A-IN

Tip 2

금능해수욕장에서 만날 수 있는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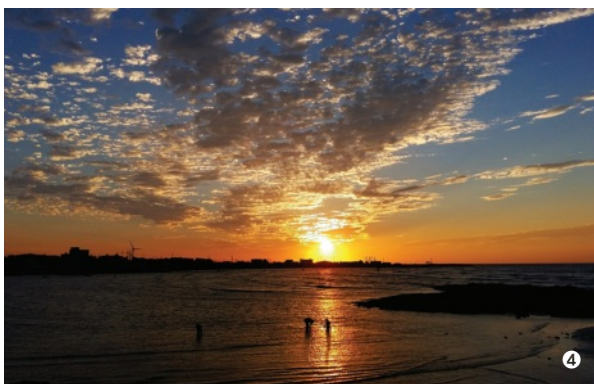
사진 1 | 한여름 쉽게 만나는 아름다운 석양.

사진 2 | 노을 비치는 하늘을 배경으로 가족의 모습을 그림자로 담아 볼수 있다.

사진 3 | 짙은 구름이 만드는 석양도 기대해 볼수 있다.

사진 4 | 태풍이 지나가고 펼쳐지는 풍경.

사진 5 | 겨울바다에서만 볼수 있는 맑고 청명함.





금능인

| 특집 대담 재릉초등학교 |

유년시절, 재릉국민학교 가던 길

녹취 및 글 | 양민숙 · 사진 | 한명희

대담 | 15회 졸업생 고희자 · 19회 졸업생 임철호 · 25회 졸업생 문미열 · 31회 졸업생 김성수 · 양민숙 · 박동균 · 41회 졸업생 김남규





금능인게



아이 셋을 재릉초등학교에 보내면서 아침 등굣길 아이와 자주 걸었다. 그때마다 수시로 시간여행을 다녔다. 국민학교란 명칭으로 부르던 때 나 역시 이 학교를 뛰어다녔다. 돌아보면 아련한 추억들이 지금의 나를 탄탄히 지탱해 주고 있다. 함께 손잡고 다녔던 친구들,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대의 학교생활, 그리고 등하굣길, 흩어져 있었던 추억의 조각들을 대담의 자리를 빌려 엮어 보려고 한다. 지금도 그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 주고 있는 재릉초등학교, 이제 시대를 거슬러 만나본다.

؛ 민숙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는 마을 소식지 ‘금능인’ 특집 코너로 ‘재릉초등학교’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나아가 재릉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의 놀이, 문화의 모습까지 확대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라는 명칭이 1993년부터 사용이 되었으니,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모두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 다닌 분들이십니다. 그 시절의 이야기가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먼 후배들에게 어쩌면 신기하면서도 남의 일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학교로 맺어진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해 봅니다.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번 특집이 풍성하게 엮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도시락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학교 다닐 때의 도시락은 행복이었죠. 도시락에 얹힌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분 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희자

그때는 양은도시락이었습니다. 밥은 보리밥이었죠. 아들한테는 쌀 한 줌 섞어서 반지기 밥을 해 주셨고, 저한테는 콩보리밥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습지만 그때는 밥도 아들, 딸 차별이 있었습니다. 반찬은 거의 자리젓이었어요. 뜨거운 밥에 자리젓을 같이 싸고 갖는데, 점심때가 되어 도시락 뚜껑을 열면 자리젓이 익어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날(생일 등)에는 달걀후라이가 하나씩 들어 가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 도시락 기준이지, 다른 아이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사는 수준이 거의 평이해졌지만 그때만 해도 잘 사는 집, 못 사는 집 차이가 너무 심해서 반찬에서도 달랐죠. 잘 사는

집 아이들은 주 반찬이 달걀이었고, 우리집 도시락 주 반찬은 자리젓. 멸치이었으니까요. 어쩌다 김치도 한번 씹 들고 가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매일 도시락을 싸고 다녔습니다. 5학년 때부터는 학교에서 점심을 주었는데, 메뉴가 강냉이죽과 강냉이빵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동생들 주려고 먹고 싶어도 참았다가 집에 갖고 와서 동생들 나눠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가끔씩 개역(미숫가루)도 도시락 대신 가지고 다녔습니다.

؛ 철호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은 없었고, 학교에서 6년 동안 점심을 제공해주었습니다. 회자 누님이 이야기 한 강냉이죽과 강냉이떡이었죠. 그 당시에는 엄청 맛있었던 음식입니다. 학교에 강냉이떡을 먹으러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시락은 아니지만, 우리 집에서의 밥상 풍경도 아들과 딸이 달랐습니다. 아들 밥상은 쌀밥을 따로 나눠주고, 딸은 양푼이에 같이 먹고는 했는데, 그 당시는 일상적인 거라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주 반찬은 마농지(마늘장아찌)였습니다.

؛ 미열

도시락에는 반지기 밥에 계란말이, 멸치볶음, 김치, 마농지가 주 반찬이었습니다. 가끔 좁쌀이 들어간 밥도 먹었어요. 6학년 때 쯤에는 소시지가 나올 때여서 소시지에 계란 입혀서 반찬을 해 가지고 가서 먹었습니다. 집에서 자주 고기 옛(돼지고기, 흑염소)을 고았는데, 그때마다 옛을 학교에 가지고 가서 먹은 기억도 있습니다. 앞에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 학교에서 조각 강냉이빵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 성두

학교 다닐 때 도시락 반찬을 잘 싸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점심때면 늘 그 친구의 인기가 가장 좋았죠. 가끔 점심시간 전에 소시지 반찬 싸오는 친구들 도시락 뚜껑을 열고 침을 바르기도 했었죠. 그럼 그 친구는 도시락을 안 먹었고 우리는 친구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는 행동이긴 했는데, 그 당시는 그런 행동이 별 문제의식 없이 행해지곤 했었죠. 그 당시 제일 좋은 반찬은 쥐치 말려서 구운 거였습니다. 최고로 인기 있는 반찬이었죠. 그 당시만 해도 금능리에 는 쥐치가 많이 잡힐 때여서 지금처럼 귀한 대접을 받지는 않았어요.

; 동 군

어렸을 때의 밥상과 도시락은 경제적 환경에 따라 너무도 달랐습니 다. 우리 집은 홀어머니에 다른 집보다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반찬 이 늘 콩자반이었습니다. 정부미가 나올 때여서 보리쌀에 정부미를 섞 은 반지기 밥을 먹기도 하였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대부분 보리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 남 규

저는 한참 밑이라 세대 차이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도시락에 대 한 기억은 소풍이나 운동회 때밖에 없습니다.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 지는 오전수업만 해서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도시락을 들고 다니지

않았죠. 그러다가 5학년 때부터 학교에 급식소가 생겨서 급식을 시작 했습니다. 쌀밥에 김치에 세 가지 정도의 반찬이나 국이 포함된 급식이 있었어요. 지금 급식과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평범한 식단이었죠. 그 때의 급식소는 옛날 강당으로 사용하던 공간이었고, 지금은 새로 지어 서 아주 위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민 독

광장히 흥미진진합니다. 50년대부터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학교 안에서의 점심시간 풍경을 함께 공유해 보았습니다. 시대별 혹은 경제 적 차이 등의 이유로 먹는 음식이 조금씩 달랐고, 제공하는 방법이 조 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했던 학교의 점심시간은 오늘 날까지 좋은 기억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도시락에서조차 아들과 딸의 차별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다행히 시간 이 흘러가면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 도중에 학교 운동회, 소풍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학교의 행사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보겠습니다. 점심시간만큼이나 진한 추억으로 자 리하고 있을 학교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 희 자

학교에서는 운동회가 가장 큰 행사였죠. 여학생들은 운동회 때 한복 입 고 부채춤을 쳤습니다. 학예회도 있었는데 그때는 발레를 했어요. 한 복이나 발레복이나 학교에서 해 뒀던 것이 아니라 개인이 다 집에서 준



15회 졸업생 고희자



19회 졸업생 임철호



금능인게



25회 졸업생 문미열



31회 졸업생 양민득

비를 해서 가지고 가야 했기 때문에 의상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준비하느라 참 힘들었겠다 싶습니다. 소풍 때는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집에서 달걀을 삶았어요. 과자와 사과도 샀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먹는 것으로는 소풍날이 가장 특별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소풍을 가면 그때는 정월이오름, 느지리오름을 많이 갔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오름까지 걸어서 갔죠. 소풍 가서 보물찾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운동회 때는 집에서 김밥을 만들어서 갔습니다. 단무지하고 계란만 들어간 김밥이었지만 너무 맛있었죠. 김밥이 주는 기운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최고로 곱게 단장하고 학교에 가셨어요. 마을 분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서로서로 반찬이 노출이 되니, 나중에 말 들을까봐 신경 쓰고 가실 수밖에 없었죠. 사실 가을 운동회 때가 엄청 비빔 때였거든요. 운동회가 끝나면 출배러 가기도 하셨어요. 너무 바쁠 때는 운동회에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그대는 풀이 죽어서 부모님들 함께 하는 친구들을 부러워하곤 했죠.

; 철 호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예회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3학년인가 4학년까지는 강당에서 발표회가 있었는데, 학교가 작아서 강당을 교실로 만들다 보니 강당이 없어져 그 후로 학예회나 발표회 같은 것을 못했죠. 운동회 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물건을 팔러 오는 사람이 많았고 간식거리도 참 많았습니다. 운동회 때 남학생들이 함께 기마전을 했었는데 청군, 백군 나뉘어서 팀별로 다양한 대항전을 했었

죠. 가만 보면 지금이나 그때나 운동회의 풍경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 미 열

소풍 때도 시냇가에 달걀을 삶아서 가지고 갔어요.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 운동회 모습은 희자언니 때 그리고 철호오빠 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운동회 때 친구들과 무용을 했었거든요. 소풍 때는 먼 거리를 걸어서 가면 힘들었을 텐데도 괜히 신이 났어요. 학교를 벗어난 어떤 해방감이었던 같기도 합니다.

; 민 득

저는 운동회 때 노란 저고리에 빨간 치마 입고 부채춤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총채 무용도 했었고, 소고춤도 추었는데, 운동회만 돌아와 가면 수업 안하고 뜨거운 햇살 아래서 연습을 했었어요. 보통 4.5.6학년 여학생들이 함께 했었는데 그 과정이 많이 힘들었죠. 합주반도 했었는데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의상이 문제였어요.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물려받아 입고는 했었죠. 동네 재봉틀 잘 하시는 분께 학예회 무용복 부탁해서 만들어 입은 기억도 있어요. 합창복은 하얀 블라우스에 까만 치마였는데, 저는 사실 그 옷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의상 때문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옷이 없어서 합창대회에 못 나간 적도 있었으니까요. 소풍 때는 어머니가 정말 야심차게 사이다 한 병을 사 주셨는데 병뚜껑 열지를 못해서 못 먹고 다시 집으로 가지고



기회 졸업생 김성수



기회 졸업생 박동군

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재미있는 추억이지만, 그 당시는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 동 군

운동회 때 달리기를 잘 하지 못해서 일반 달리기보다 장애물 달리기 좋았죠. 병 낚시 달리기도 있었는데 장애물 달리기는 잘 뛰지 못해도 주어진 미션만 잘 수행하면 1등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보통 네명씩 달렸는데 1등부터 4등까지 다 상품을 줬어요. 공책이나 연필을 주로 줬는데 그 개수만 달랐지 다 상품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운동회 때 공책을 푸짐하게 받기도 하었죠.

; 성 수

운동회 때 여학생들이 춤을 추었다면 남학생들은 차전놀이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여학생들의 무용이 발표하는 것이라면 남학생들의 차전놀이는 청군, 백군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대항전이었죠. 점수도 있었어요. 그때도 4,5,6학년이 함께 했었고 저는 한 쪽의 우두머리로 맨 꼭대기에 올라가 지휘하고는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운동회 말미에 진행되었고 운동회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 민 숙

돌아해보면 친구들과 목이 터져라 응원했었던 운동회, 먼 길을 걸어 장

기자랑을 했던 소풍, 몇 달을 연습해서 부모님들을 모시고 진행했던 학예회 같은 학교 행사가 있었네요. 그 당시 발레를 했었다는 것도 놀랍고 먼 거리를 걸어서 소풍을 갔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지금의 학교 생활과 비교해 본다면 공동체 의식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다양성으로 치자면 지금 학교생활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몇 안 되는 학교 행사를 참 진득하게 강하게 참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학교와 연관된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송충이를 잡기도 했고, 나무땀감도 학교에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 희 자

송충이를 잡았던 학교는 아마 재령초등학교밖에 없지 않을까? 학교에서 단체로 소나무 숲에 들어가 대나무집게로 송충이를 잡고 석유를 부은 강통에 넣고는 했었죠. 송충이가 많으면 소나무가 죽는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살리고자 송충이를 잡았던 거죠. 학교에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장작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녹차를 심어서 친구들과 녹차 잎을 따기도 했었죠.

; 철 호

금능리에는 사방조림으로 인한 소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어서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참 이로운 소나무 숲이었죠. 하지만 송충이로 인한 걱정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방재가 잘 되어 있어서 송충



이를 볼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소나무 밭에 들어가면 머리에도 송충이가 똑똑 떨어지곤 했었으니까요.

; 성수

우리도 송충이 잡으러 다녔었는데 강통에 잡고 모래구멍이 파서 모으면 기름 뿌려 불 붙여서 없애기도 했습니다. 학교에 잔디를 심으려고 집에서 잔디를 가지고 간 적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결명자를 재배해서 결명자를 아이들이 따기도 했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학교 안에서 초등학생들이 안 해 본 것이 없네요.

; 남규

우리 때는 솔 숲 전체 방재가 되면서 송충이를 잡은 기억은 없습니다.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참 편하게 학교를 다닌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공유할 수 없는 추억이 없다는 것이 아쉽기도 합니다.

; 미열

학교에서 급식소 딸감으로 쓰기 위한 솔방울을 학생들이 단체로 주우러 다녔습니다. 학교에서 보리 갈아서 친구들과 보리 밟았던 기억이 있어요.



위회 졸업생 김남규

; 민숙

김성수이장님과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녀서 저도 잔디를 가지고 간 기억이 있습니다. 잔디를 구하지 못하니까산에 가서 잔디인지 뭔지 모른 것을 몰래 파서 가지고 갔었죠. 생각해 보면 가난한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참 많았던 것 같네요. 지금 시대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죠. 녹차잎을 따고 결명자 열매를 따고 보리를 밟는다니요. 오늘 나온 이야기들로 그 시대상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운영도 힘들었을 테고 운영을 하려면 필요한 것들은 많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노동력과 물품을 학생들 혹은 학부모들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초등학교를 다닐 때의 상황을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철호

금능은 어장이 풍부하고 소나무 숲이 있어서 금능리의 힘이 주변 마을에 비해 가장 셧습니다. 딸감이 많아서 다른 마을 사람들이 금능을 부러워했죠. 다른 마을 사람들은 금능 소나무 숲에서 솔잎도 꺾지 못하게 했어요. 금능 소나무 숲에 솔잎 꺾으러 오면 금능사람들이 가져가지 못하게 다 압수하고는 했습니다. 한림 감협 뒤에 옛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옛을 만들려면 딸감이 필요해서 그 곳에 딸감 같은 것들을 가지고 가서 팔았어요. 연탄보일러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솔잎 꺾으러 가는 풍경이 사라졌지요. 예전에는 솔잎 꺾으러 가는 것도 품앗이로 해서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산으로 가고는 했어요.

원담도 금능리에만 있으니까 다른 마을 아이들이 금능 아이들을 많이 부러워했어요. 자리돔도 많이 낚았으니까요. 한 번 들었다 하면 멀도 어마어마하게 들었죠. 새우도 들고 복어도 들었어요. 대바구니 들고 가서 바닷물을 뜨면 바구니 안에 물고기가 가득 들어왔어요. 멸을 삶아서 말렸다가 볶아서 반찬으로 먹기도 하었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입학을 해야 하는데, 우리 때는 자동 진학을 했어요. 하지만 몇 년 선배만 하더라도 중학교 진급 시험을 보아야만 했지요. 중학교에 진급하려면 주판을 잘 놔야만 했어요. 실제로 시험을 못 봐서 떨어진 선배들도 많았어요.

특별식으로는 국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 국수는 법이었어요. 국수만 해주겠다고 하면 놀다가도 밭에 갔었죠. 국수라고 해 봐야 국수 조금에

물이 가득이었고 고명으로는 부추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특별히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이니 국수는 최고의 음식이었죠. 마을에서 마을길 만들기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을 동원하고는 했는데 그때는 밀가루를 배급해 주곤 하였어요. 그때 받은 밀가루가 주식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죠. 쌀보리를 재배하였다가 개역(미숫가루)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였는데 요. 개역은 꼭 식은 밥으로 비벼 먹어야 맛있어요. 그 당시에는 밥을 보관할 수 있는 밥통 같은 것이 없었으니 한 번 밥을 하면 쉽게 상해버리곤 했는데 그때는 쉼다리를 만들어서 먹었어요. 쉼다리에는 설탕이 없었으니 사카린을 넣어서 먹었죠. 참 맛있게 먹었어요. 그 때는 모든 것이 다 맛있었을 때였죠. 마을에서 조금 올라가면 삼동밭이 있었는데 삼동 따러 엄청 다녔어요. 그 삼동밭도 우리 마을에 있어서 다른 마을 사람들은 접근을 하지도 못했죠.

؛ 히자

이야기 하다 보니 저도 떠오르는 것들이 많네요. 솔잎 굶어서 팔았던 기억은 저도 있어요. 한림 다리에서 솔잎을 사러 금능까지 왔었죠. 지금 같으면 상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밥상과 관련된 기억이 많아요. 아들과 딸의 밥상이 다르다고 했었잖아요. 아버지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제 소원이었죠. 설거지할 때 밥 남겨 주기를 기다리기도 했어요. 그만큼 아버지의 밥상과 우리의 밥상은 달랐어요. 그 당시만 해도 뽕땅이 있었는데, 돈이 필요하면 거짓말을 했었죠. 공책을 사겠다고 해서 돈을 타고 확인용 새 공책을 한권 따로 준비했다가 아버지한테 확인해주고는 했어요. 초등학교 5,6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중학교 다닐 때에는 비오는 날만 버스 타고 다녔죠. 버스비가 15원 정도 했어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 핑계대면서 발일을 안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께서 “보리 고고리 주우면 진거 해주켜.”하시면 바로 다른 일 다 팽개치고 밭에 가고는 했어요. 그때는 국수를 진거(=긴거)라고 불렀었죠. 귀한 음식이라 국수 앞에서는 못 할 것이 없었어요.

농사철이 되면 농사방향이 있었는데 위로 태어나서 거의 동생들을 업고 키웠어요. 일 바쁘면 학교 결석해서 밭에 가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밭일이 먼저였으니까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물을 길러 다니기도 하였어요. 물항아리가 엄청 컸는데 혼자서 물 허벅 지고 물을 길으려면

오래 걸리니까, 동네 친구들 몇 명이 물 품앗이를 했었죠. 서로 물허벅에 물을 지어다가 돌아가면서 물 항아리를 채웠어요. 잘못하다가 허벅 깨트리기도 하였는데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니깐 힘들다기 보다 재미 있었어요. 어릴 때도 빨래를 직접 했었는데 빨래는 주로 정구수에서 했지요. 물이 계속 흐르니까 가끔 물길에 빨래도 같이 떠내려가면 그거 주우러 가고는 했어요.

؛ 미열

제가 고생한 것은 없는데, 제 언니가 학교 다닐 때 저를 업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는 언니가 저를 엄청 미워했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 다들 바쁘시니까 만이가 동생을 돌봐야 하는 것이 기본이었던데요. 그 당시 만이는 참 고생을 많이 했었죠.

؛ 동 군

재릉초등학교 진입로가 그 당시 국민학생의 수준에서의 체감은 엄청 길었죠. 교문에서 교실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게 느꼈으니까요. 체력장 시험을 볼 때는 100미터 달리기를 진입로에서 했어요. 지금 이만큼 나이를 먹으니 그 거리가 성큼성큼 몇 걸음이 안 되어 보이는데 그만큼 시간이 흘렀음을 느끼게 됩니다.

؛ 남 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집안의 경제적 수준을 학원 다니는 것에서 알 수가 있었어요. 학원은 있었으나 집 사정이 어려우면 학원을 다닐 수가 없었으니까요. 친구들이 학원 다닐 때 저는 바로 집으로 왔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 집이 참 어려웠구나 생각이 듭니다.

؛ 민 독

금능리 마을 이야기며, 농사 이야기, 진거(국수) 이야기까지 너무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어렸지만 그때의 아이들은 지금의 아이들보다 가정 공동체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고사리 손까지 보태야 하는 그 시절의 모습이 오늘 대담자리에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릉초등학교 하면 소나무 숲과 연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귀산' 인데요. 저는 오늘 이 이야



금능인게



기도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 봅니다. 학교 다닐 때 저는 귀신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심지어 학교 화장실에서 빨간 손이 나와서 잡아간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니까요. 어때세요? 다 시대별로 귀신 이야기는 공유하지 않았을까요?

; 철 호

학교옆에 충혼묘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때도 귀신 이야기가 있어서 학교 교문으로 잘 안 다녔어요. 금능에서 학교로 가다보면 셋길에 있었는데 그 곳에서 울타리를 넘어서 학교에 다녔죠. 충혼묘지 맞은편에 굴이 있는데 그 근처에서 군인 귀신 봤다는 사람도 많았어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때는 자동차가 없이 다 걸어 다닐 때였는데, 자동차가 생기면서 불빛이나 자동차 소리로 인해 더 이상 귀신을 보았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 희 자

맞습니다. 학교에서 숙직하다 보면 군인들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소리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때였죠. 지금은 귀신 보았다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아마도 자동차나 집 그리고 가로등의 불빛이 많아져서 볼 수가 없는 거겠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귀신 때문에 솔잎 굶으러 갈 때도 마을에서 언제 ‘솔잎 굶습니다.’ 하고 같이 다녔어요. 솔잎 굶으러 갔다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사람 찾으러 다니기도 했거든요. 다행히 다음날 돌아오긴 했지만 귀신이라는 존재를 그 당시는 부정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6학년이 되면 진학시험 때문에 학교에서 10시까지 공부를 하고는 했는데 소나무 밑에 귀신이 나온다고 어머니들이 학교까지 데리러 가곤 했어요.

; 민 독

저도 귀신이야기에 막 흥미 붙이던 어렸을 때 ‘도깨비불’을 직접 보았거든요. 사실 도깨비불이라고 믿고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모든 것들이 많이 어수선하고 엉성한 때였으니 모든 것들이 다 가능했을 듯도 하고, 아니면 사람들의

심리적 환경도 작용하였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능리에 살고 있어서 특혜를 받은 땔감과 원담의 물고기, 그리고 그 당시 음식 나아가 누구나 들었을법한 귀신 이야기까지 우리의 유년시절은 참 흥미진진하고 순박했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쩌면 혼자만의 추억으로 묻고 갔을 이야기였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니 선배님들의 시대, 우리의 시대, 후배들의 시대, 그리고 앞으로 재릉초등학교를 통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갈 아이들의 세대까지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음을 느껴봅니다. 또한 많이 다른 생활이었지만 여기에서 공통점을 찾다면 모두가 금능리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실 때 그런 모습이 다 보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아름다운 마을, 아름다운 학교로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야기가 오래오래 미담으로 전해지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IN

; 국민학교

이 명칭은 1941~96년에 사용되었다. 최초의 초등교육기관은 소학교인데,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교육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1906년 8월 27일에 공포된 보통학교령에 의해 소학교가 보통학교로 바뀌었으나, 일본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보통학교와 구별하기 위해 소학교라는 명칭이 계속 사용되었다.

1926년 7월 1일 소학교령에 의해 소학교, 보통학교 구분없이 삼상 소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후 1941년 일제치령 제148호 '국민학교령'에 의해 국민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황국신민을 양성한다는 일제강점기의 초등교육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학교'라는 명칭은 나치독일의 전체주의 교육을 상징했던 '폴크스슐레'(Volksschule)에서 연원한다.

교육부는 광복 50주년을 며칠 앞둔 1995년 8월 11일 "일제의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학교의 명칭을 변경한다"고 발표하고 1995년 12월 29일 교육법을 개정하여 1996년 3월 1일부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변경했다.

(daum백과사전)

금능인

그 원담 축제 이야기

글·사진 | 한명희

제주도 서쪽 해안가 마을 한림읍 금능리 마을은 어쩌면 그저 스쳐가면서 금능해변의 경치만 보고 쓰윽 지나가는 곳이
었다. 해변이 예쁜 곳이라는 타이틀에 머물러 있었던 지난 날들로 기억이 된다. 예쁜 해변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블루오션 같은 곳 여행 마니아들만 아는 그런 곳이었다. 그렇게 여행 마니아들은 금능리마을 구
석구석과 금능해변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금능해변을 매년 찾아왔던 것 같다.

책자를 보면서 여행을 하고 지도를 보면서 찾아가고 직접 가본 경험을 들으면서 여행하던 아날로그 시대의 여행 스타
일이 금능리 마을과는 어울리는 것 같다. 차츰 스마트폰과 SNS가 그 자리를 메우게 되니 자연스럽게 금능마을도 금
능해수욕장도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역할에 일조를 한 것이 금능원담축제가 아닌가 싶다.

자연이 주었던 그대로의 모습을 지키면서 금능마을을 알리기 위해 금능원담축제가 마을사람들의 힘으로 지켜져 왔다.
지금까지 12회 금능원담축제가 성공적으로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첫시작은 어떠했으며 그 과정속에
서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궁금해졌다. 지금부터 금능원담축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금동안개





천 단추를 꿰다

금능원담축제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했던 분은 24대 이창훈이
장이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한명희 원담축제를 생각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이창훈 이장하기 전부터 협재해수욕장, 금능해수욕장 같이 말은 하지만 공식적인 해수욕장이 아니었거든. 협재해수욕장을 금능해수욕장과 같이 통합하려고 행정에서 하려고 하니 마을주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이장을 출마하면서 7가지 공약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금능해수욕장을 정식 인가받은 해수욕장을 만들겠다 했는데 그게 우리가 뭐 해수욕장 만들어주십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에 따라 자꾸 노력하는 거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던 거지. 그래서 돌아보면 우리 금능만큼 원담이 큰 데가 없는 거지 바로 해수욕장 옆이고 바다 보면 항상 우리자원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이용한 우리가 해변축제를 만들어서 행정에 요구하며 우리가 바라는 해수욕장을 빨리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처음 시작이 되었던 거지. 내가 주민들에게 이장 출마하면서 그렇게 공표를 했고 당선되자마자 제일먼저 준비한 것이 이거였거든.

한명희 지금도 없고 막막했을텐데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나요?

이창훈 그 당시 마을 돈으로 500만원 시청 보조받은 금액이 1500만원으로 시작했지.

한명희 제가 듣기로는 1회부터 9회까지 이익이 나지 않고 적자만 나서 주민들이 이런 행사를 왜 하나고 반발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어떠셨나요?

이창훈 주민들의 인식인데 우리 같은 생각은 축제로 수익 사업을 올리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 큰 목적은 해수욕장을 인가 받는 것이 급선무다. 나 할 때 2년 동안은 흑자는 아니어도 적자도 아니었는데 마지막 3회째 500만원 적자를

봤는데 불꽃을 안 쏘다가 불꽃을 쏘았는데 그게 적자가 난 거지. 원래 스폰을 하기로 해서 진행을 한건데 스폰을 안한 거야. 그게 적자 본 거지. 근데 애초에 처음 시작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주민들이 왜 돈드는 것을 하느냐, 500만원도 아까워서 막 뭐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득을 많이 했지. “우리가 500만원 들어가도 오히려 부가가치로는 5000만원, 5억을 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라. 당장 500만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우리 마을 홍보나 금능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깐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라” 설득해서 여기까지 온거고.

한명희 12년 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남보다 좀 더 앞서 미래를 보신 거 같아요.

이창훈 우리가 항상 협재해수욕장이 사람이 많고 보면 우리 금능이 조건이 더 좋은데 늘 뒤처지니깐 속상하고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봤었지.

한명희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이창훈 아무래도 이 문제지. 행정하고 부딪힘이 좀 많았지.



제24대 금능리장 이창훈





금능인게



지금 제주도 전체를 봐도 읍면 단위에 해수욕장이 두 개 있는 읍면이 없거든. 그럼 행정에서 해수욕장이 두 개이면 그만큼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한 부분 아니? 그러니 행정에서 반대를 하더라고. 안됩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협재랑 금능이랑 합쳐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까. 이런 논리로 가더라고. 합치면 행정에서도 예산을 더 가지고 와도 협재는 이만큼 가져가고 금능은 요만큼 줄꺼라고 내가 알기 때문에 원담축제를 핑계를 댔지. 해수욕장 대표 회의 1년차 때 금능 주민들이 해수욕장을 알리려고 노

력하고 있다. 우리 마을이 협재보다 크고 해수욕장 규모도 크고 왜 우리가 협재해수욕장에 빌붙어서 가느냐. 금능 마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다, 이렇게 시장한테 말했더니 내 말에 시장이 답변을 못하잖아. 그럼 자체적으로 축제도 하고 그러니 천천히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 수산과장한테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표자 회의할 때도 또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시청에서는 이제 읍장한테 SOS를 청한 거지. 이장님을 잘 달래 어떻게 해보건. 그러니 읍장이 나한테 그냥 가면 안 될까, 그렇게 얘기해서 몇 번을 다시 얘기했수

겐. 그럼 읍장님이 저희 입장 같으면 행정핑계 대고 그냥 그러게 마심 할꾸간. 난 그래서 원담축제를 시작한 거고 호응도 좋고 지금 뭐 협재나 금능이나 성수기 때는 비슷하게 오고 있지 않냐. 그럼 아예 인가 안 해도 좋으니까 따로 마을해수욕장으로 내불러. 그렇게 억지를 좀 썼지. 그렇게 해서 2010년도 마지막 해에 인가를 받게 된 거지. 공약은 지킨 거라. 그때부터 지도상에 금능해수욕장으로 표기가 되고.

한명희 처음 시작인데 1회 끝나고 나서의 기분을 어땠어요?



① 2008년 제1회 축제 ② 2009년 제2회 축제 ③ 2010년 제3회 축제 ④ 2011년 제4회 축제 ⑤ 2012년 제5회 축제 ⑥ 2013년 제6회 축제 ⑦ 2014년 제7회 축제 ⑧ 2015년 제8회 축제 ⑨ 2016년 제9회 축제 ⑩ 2017년 제10회 축제 ⑪ 2018년 제11회 축제 ⑫ 2019년 제12회 축제





이창훈 어쨌든 걱정 반으로 시작했던 것이 끝나니깐 아, 이걸 되겠다. 그런 확신이 들었고 다만 내가 축제 끝나고 나서 청년회 청년들에게 고생한 아이들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 그때는 돈이 없어서 지금처럼 식사비 몇 십만 원 줄 형편도 못되고 그냥 간단히 저녁 갈비만 먹고 끝났거든. 지금 청년들 고생하는 것은 고생도 아냐.

한명희 12회째를 보내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이창훈 체험을 이틀간 내내 했고 백사장에 스크린을 세워가지고 만조시에 영화 싸 가지고 바다 위에 영화상영을 했었고 선진그물도 이틀간 했었고 구멍뚫시도 했고 뭐 얼마나 바빴을 거야. 프로그램은 엄청 다양했었지. 이벤트 회사에 맡기고 그런게 아니고 순수

하게 마을주민이 준비하고 마을주민이 하는 축제로 갔었거든. 그런데 점점 이벤트 회사에 맡기고 하는게 좀 안타깝지. 이런 축제는 지역축제로 가야하지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 선진그물 할때도 주민들도 같이 들어가 가르쳐 주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로 가야지. 관광객들만 가면 그냥 당기면 고기들 밑으로 다 도망가고 그러잖아. 원담축제가 맨손으로 고기잡기체험도 저기 원담까지 같이 해야 해. 이제 작아.

한명희 12회까지 왔는데 처음 기획했던 이장님이 생각했던 효과와 기대했던만큼 결과물이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이창훈 어쨌든 지금의 결과는 해수욕장 인가였으니깐 달성했고 이제 한 달 보면 협재나 금능이나 관광객들이

비슷해지고 인터넷으로 봐도 금능해수욕장이 많이 뜨는 것 보면 뿌듯한 느낌이 있거든. 다만 원담축제 운영상의 아쉬움이 있지.

한명희 끝으로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창훈 그거 뭐, 하하. 원담축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오래도록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밖에 더 없어. 서부지역 대표적인 축제로서 우리가 행정에 손 벌리는 게 아니라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름의 축제 하면 금능원담축제 이렇게 말 나오게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지.

첫 단추부터 쉽지 않았던 축제를 잘 끼워준 이창훈 이장과의 즐거운 추억여행으로 빠져봤다. 담담하면서도 뿌듯함이 그의 숨소리에서 느껴졌다.





고비는 있어도 좌절하지 않는 금능주민들

제26대 금능리장 김성수

시작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고비도 있었다고 들었다. 목표, 가치, 인식 등의 다양한 생각들로 인간 갈등은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는냐가 지도자의 역량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고비의 순간을 어떻게 풀어갔는지 10회 원담축제 준비전으로 들어가 본다.

한명희 몇 회부터 원담축제를 주관을 하셨는지요?

김성수 10회부터 3년을 주관했지.

한명희 10회 때 고비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김성수 1회부터 12회까지 12년을 행사를 하면서 순탄하게 잘 흘러왔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지. 9회까지 그러니까 내가 이장을 맡은 다음 전회에 마을회의를 하면서 이거 하지 마라, 마을에 돈만 먹는 하마 아니냐! 하지 마라 그런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장을 맡은 다음에 총회 소집해서 내가 하겠다. 분명 내 눈에는 손해는 안볼 것 같은데 절대 내가 마을돈 싹 한 장 안 건드리고 마을행사를 해내겠다. 돈이 안 되면 내가 구걸을 하든 어떻게든 할 터이니 걱정 말아라. 그래, 그럼 해봐라~ 해서 하게 된 거지.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을 하나씩 실행해 나갔지. 원담축제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흑자를 내도록 해보겠다. 하고 마을 분들에게 많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지. 지금은 흑자를 계속 내서 마을공금 외에 원담축제기금으로 따로 적립해 놓아서 3년째 적립을 시켜놓았어.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니깐 가능성이 보이는데 조그만 더 신경을 쓰고 홍보를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긴 거지. 내가 뭐 특별히 뭐를 더 해서 하겠다. 이것은 아니고 맨 처음에는 어렵게 어렵게 했지만. 처음 시작 했을때는 흑자를 남기려고 생각하고 하면 안되지. 몇 년 해보니 흑자를 낼수 있는 계기가 된 거라.



한명희 지금은 원담축제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언제 결성이 된 건가요.

김성수 내가 마을감사할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때는 개발위원회가 그냥 추진위원회를 겸하고 있었으니 아무래도 관심도가 떨어지지. 관심 있는 사람 한 두 명 외에는. 이걸 아니다 생각해서 운영위원 중에 3명 선발하고 외부에 금능리 고향인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해서 8명에서 10명 정도 영입을 해서 처음 시작했지. 기존 사람들만으로는 아이템이 안 나오니까... 국제관악제 말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도 모셔다가 이야기도 들어보고,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니깐 출연팀 섭외도 부탁하고, 양민숙 관장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기획을 많이 해봤으니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페이스북 페이지도 만들고 준비 단계부터 계속 올렸지. "우리축제 이렇게 만듭시다" 라고 계속 올렸지.

한명희 원담축제가 12회를 마쳤는데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흑자를 냈다고 성공은 아닌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원담축제로 금능리를 많이 알리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원담축제가 제주도 서쪽을 대표하는 축제라고 생각이 들 정도



로 됐으니 성공이라고 보아도 되겠지.

한명희 앞으로 원담축제가 얼마만큼 발전되면 좋겠는지 말씀해주세요.
김성수 원담축제 기금으로 계속 적립해 놓았는데 앞으로 마을차원에서 수익을 내서 마을소득에 연관이 되어야지. 부녀회는 생활개선회든 어촌계 해녀들이든 소득창출도 되고 연계되어 숙박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마을소득이 창출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우리나라 전통을 가지고 하는 축제라 다른 축제와 다르게 마을을 외지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앞으로는 아예 한 달은 축제기간이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지. 메인 행사는 이틀이면 이틀하고 한 달 내내 주말마다 공연하고 해수욕장 개장할 때 개막행사하고 폐막할 때는 폐막행사하고. 금능해수욕장을 축제와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야지. 간이공연장 하나 만들어서 버스킹도 하고 금능해수욕장은 물놀이만 하는 게 아니라 복합 문화공간으로 발전되어서 널리 알려줬으면 해.

잠시나마 고비에서 넘어지지 않고 슬기롭고 당당하게 이겨낸 김성수 이장의 차분한 말투에서 금능리의 미래를 볼수 있었다.

성공이라는 말에 아직도 보여줄게 많다는 금능주민들

축제란 무엇일까?

금능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가치를 실현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내는 문화컨텐츠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 금능리의 이미지 개발을 생각하고 지역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자연스럽게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모범답안이 아닐까?

원담축제로 금능해수욕장을 알렸다면 이제는 좀 더 금능마을 안쪽 소소한 작은 길로 이어지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심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금능원담축제를 취재하면서 느낀 점은 이렇게 지자체의 도움 없이 오로지 마을사람들의 힘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어떠한 것보다 제일 큰 의미를 갖는 것이다. 금능리민의 자긍심, 자부심이 낳은 결과이고 마을주민 한 명 한 명 그 자긍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 삼촌은 발일 제쳐두고 도와주고 저 삼촌은 성원과 격려해주고 한 분 한 분 참석해주고 지켜봐주고 조언도 해주시니 이 어찌 몇 사람들이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마을사람들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는 축제이다. 금능원담축제 하나만 봐도 금능리 마을사람들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금능리의 통합과 긍지를 이끌어내는 금능원담축제가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길라잡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서·IN







금능인



마을지도 그림 | 안민승





금능인게



제주

올레



14코스

속



금능

마을

글·사진 | 김순일

1980년대 엄마아빠의 신혼여행 코스를 지나서, 1990년대 수학여행이나 단체관광으로 일관하던 제주도 여행을 자유여행과 도보여행의 전 세계 1번지로 손꼽게 만든 것이 제주올레이다. 제주올레로 인해서 사람들은 차에서 내려 제주도를 걷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제주도의 바다와 돌담과 밭길, 숲길을 걸으며 도시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재충전하기 시작했다.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치유의 힘을 만나려고 매년 수십만명이 제주올레를 찾고 있다. 제주올레 26개 코스 중 금능마을을 지나는 14코스를 만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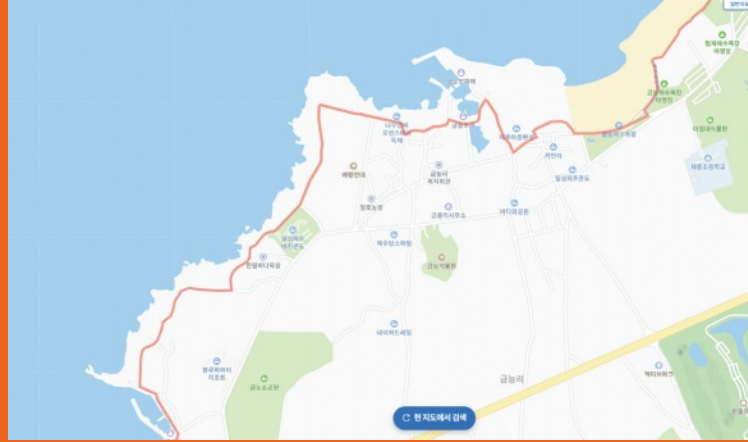
제주올레 14코스는 한경면 저지리에서 출발하여서 한림항까지 19.1km로 조성되어 있으며, 이중 약 3.2km의 금능리 경유구간이 포함되어 있다. 또 금능리 구간 중 일성콘도에서 금능해변까지 2.1km 구간은 철책어 구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제주올레는 도보 여행자를 위한 길입니다. - 제주올레 소개 글에서



제주올레 14코스 중 금능마을 구간



제주올레를 운영관리하고 있고 있는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올레꾼들에게 제주올레 14코스의 금능리 구간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담벼락 아트프로젝트(금능마을) 지나면 바윗길이 끝나고 포장로가 나타나며, 평탄하고 완만한 휠체어 구간이 시작해 금능리까지 이어진다. 길은 평탄하고 어려움이 없지만 바닷가길은 파도가 가깝고 바람이 많이 부니 휠체어나 유모차로 이동할 때에는 날씨를 미리 잘 살펴 둔다. 금능리는 호젓한 어촌으로, 마을길에 들어서면 곡선으로 구불구불 뽀얀 길을 따라 돌담과 나즈막한 집들이 자리잡고 있어 거세던 바닷바람이 가라앉고 아늑한 느낌을 준다. 마을길을 따라 금능포구를 한 바퀴 돌면 제주 서쪽 바다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금능으뜸원해변과 협재해변을 만난다. 여름철이라면 물놀이를 하며 한숨 쉬어가기에 좋다. 협재해변은 오래 전부터 관광객이 많은 명소이고, 그 옆에서 나타나는 금능으뜸원해변도 소박하면서도 협재에 버금가게 아름다운 백사장을 품고 있다. 단, 겨울철 바람이 많은 날에는 희고 가는 모래가 날리곤 하니 주의하자.’ - 『제주올레 가이드북』에서

14코스를 다녀간 올레꾼은 금능리 구간을 아래와 같이 기억하고 있다.

‘금능등대는 우리를 금능리 마을로 인도해준다. 정다운 돌담으로 이뤄진 골목길을 지나자 금능포구가 등장한다. 오전 내내 걸었더니 배가 고프다. 아내는 날씨도 덥고 하니 물회를 먹고 싶단다. 물회를 잘한다는 식당이 있어 들어갔다. 작은 포구인데 알음알음 찾아온 사람들로 식당은 만원이다. 맛있고 시원한 물회에 밥 한 그릇 먹고 나니 원기가 왕성해진다. 금능해수욕장으로 향한다. 물 빠진 해변은 검은 자갈밭을 드러냈다가 은빛 모래밭이 펼쳐진다. 검은 몽돌밭에서는 마을주민들이 조개를 잡고 있고, 모래밭에서는 외지인들이 물놀이 삼매에 빠졌다. 금능해수욕장 앞으로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비양도가 수문장처럼 서 있다.’ - 『장갑수와 함께 걷는 길』 제주 올레 14코스

우리 금능마을은 아름다운 바다는 물론이고 아름다운 마을과 넉넉한 인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금능마을의 좋은 자원을 매년 제주올레를 따라 걷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마을과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금능마을을 방문하는 올레꾼들에게 ‘바다가 아름다운 금능리’ 뿐만 아니라 ‘인심이 넉넉하고 행복한 마을’로 인지하게 될 것이다. A-IN



금능인

금능 원담에는 깡이가 살고 있습니다

글 | 양민숙 · 사진 | 김순일

깡이

많은 먹거리가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는 요즘, 지역별 먹거리가 사라진지는 오래되었다. 어느 지역에 가도 비슷비슷하다. 그렇다면 우리 마을 만의 음식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전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드셨던 음식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어려웠던 시절, 주변의 식재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모방이 아닌 창작의 먹거리를 만드셨던 어머니의 음식, 할머니의 음식이 '금능리'의 먹거리, 금능리의 정체성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금능인 〈원담밥상〉은 오래전부터 금능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이나 식재료를 하나씩 조명해 보는 코너로 마련이 되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금능리 으뜸 식재료 '깡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깡이'는 '게'의 제주방언으로 지역에 따라 '깡이'라고도 불린다.



금능인게



금능
밥상

깡이 만나러 감수다

원담축제 때 금능부녀회에서 운영하는 향토음식점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메뉴가 있다. 바로 '깡이튀김'이다. 맛이나 식감도 독특하지만 금능원담에서 직접 잡은 깡이를 사용하기에 현지에서의 인기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아무 곳에서나 접할 수 없는 그 지역만의 밥상은 누구에게나 호기심을 선사하고 나아가 맛보았다는 인증으로까지 남는다. 그러기에 금능리에서의 '깡이튀김'은 금능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증샷 하나 남길 수 있는 귀한 요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깡이는 금능바다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지만 돌 틈이나 돌 밑에서 지내는 습성으로 인해 돌 밑에 가야만 만날 수 있다. 큰 갯바위 하나를 힘겹게 들어 올렸을 때 우르르 흩어지는 깡이 떼를 만난다면 큰 행운이다. 이리저리 깡이를 쫓아서 잡고 뚜껑 달린 주전자 속으로 하나씩 집어넣던 기억은 금능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터다. 그리고 나뭇대로의 '깡이' 요리 비법도 하나씩은 갖고 있을 것이다. '깡이요리'는 예로부터 해녀들이 다리 통증에 좋다 하여 보신용으로 자주 먹었다. 칼슘과 키토산이 풍부하여 뼈와 근육에 좋고 노화방지와 면역력 증가에도 효과가 있다.

요즘처럼 장마는 사람들을 지치게 하지만 바다생물들에게는 최고의 환경조건이다. 이때쯤 바다생물들은 많은 영양분을 저장하고 산란을 준비한다. 그러기에 금능 사람들은 보리수 확과 마늘수확이 끝나고 장마기간이 되면 바다에 가서 가장 맛있는 깡이를 잡았다.

2020년 7월 7일, 오래전부터 금능리 사람들이 만들어 먹었던 깡이요리를 재연하기 위해 금능리부녀회원들이 박경삼부회장댁에 모였다. 깡이요리를 위한 깡이는 금능리 임철호씨가 나뭇의 비법으로 잡아다 주셨다. 깡이는 냄새에 예민하기 때문에 냄새가 강한 어육류를 깡이 서식지 주변에 놔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바스락 바스락 소리를 내면서 깡이들이 몰려든다. 먹이를 먹기 위해 달려들 때의 깡이는 사납다. 몸집이 작아도 한 번 물리면 꽤 아프기 때문에 두터운 면장갑을 끼고 잡는 것이 요령이라고 말씀하신다. 깡이요리를 하기 까지 준비 과정도 만만치 않았다. 깡이는 자체의 바다향이 강하다. 깡이를 잡고 바로 요리를 하면 자칫 이 향 때문에 비려서 먹지 못할 수도 있다. 어르신들은 요리를 하는 과정보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보통 한나절 정도는 해감 과정을 거쳐야 한단다. 금능부녀회원들은 해감 마무리 단계에서 깡이를 소주로 씻었다. 알코올로 씻으면 마지막 남아있는 비린내까지 잡아준다.

깡이 잡으러 감수다



깡이

맛보러 감수다

깡이 손질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깡이 음식을 할 수 있다. 이날 만든 음식은 #깡이죽 #깡이국 #깡이튀김 #깡이술 #깡이장 #깡이조림 #깡이콩자반 으로 예로부터 금능 마을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먹었던 음식들이다. 이 외에도 #깡이젓 #깡이범벅 등의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고 했으나, 시간상 이 두 가지 음식은 만들지 못하였고 레시피만 공유하였다. 깡이음식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양념이 추가되어 옛날 맛 보다는 요즘사람들 입맛에 맞는 레시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는 깡이음식, 지금부터 그 비법을 공개한다.



깡이 국

재료 | 깡이, 생미역, 물, 국간장

- 1 해감시킨 깡이를 절구에서 곱게 짓짤는다.(믹서기를 사용해도 된다)
- 2 물을 붓고 체에 거른 후 국물만 사용한다.
- 3 미역(금능바다에서 캐온 미역)은 깨끗이 씻어 적당한 크기로 썬다.
- 4 깡이국물을 넣고 끓이다 미역을 넣고 국간장으로 간을 한다.

깡이 장

재료 | 깡이, 간장

- 1 해감시킨 깡이를 이용한다. (3월 보름부터 5월 단오까지가 제철이다)
- 2 항아리에 넣고 끓인 간장을 부어 봉한다.
- 3 이 간장을 서너 번 따라 달여서 식힌 뒤 부으면 오래 보관하면서 먹을 수 있다.

깡이 범벅

재료 | 깡이, 보리가루

- 1 보리가루를 질게 반죽한다.
- 2 해감시킨 깡이를 볶다가 반죽한 보리 가루를 넣어 저어가며 만든다.

깡이 죽

재료 | 깡이, 쌀, 물, 소금, 참기름

- 1 쌀은 씻어서 2시간 이상 물에 불린 다음 체에 밭쳐 물기를 제거한다.
- 2 해감시킨 깡이를 절구에서 곱게 짓짤는다.(믹서기를 이용해도 된다)
- 3 물을 붓고 체에 거른 후 국물만 사용한다.
- 4 불린쌀을 참기름에 볶다가 깡이국물을 붓고 센 불에서 끓인다.
- 5 한번 끓어오르면 불을 약하게 하고 나무 주걱으로 저으면서 서서히 끓인다.
- 6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깡이 콩자반

재료 | 깡이, 콩, 간장

- 1 콩은 씻어 잘 볶는다.
- 2 냄비에 식용유를 약간 두르고 해감시킨 깡이를 넣어 색이 빨갛게 될 때까지 잘 볶는다.
- 3 볶은 깡이에 볶은 콩을 섞어 간장을 넉넉히 부어둔다.
- 4 콩에 간장이 스며들면 깨소금을 넣고 골고루 버무린다.

깡이 술

재료 | 깡이, 소주

- 1 깡이를 해감시킨 다음 물기를 뺀다.
- 2 병에 깡이를 먼저 넣고 후 술을 부어 봉한다.
- 3 일주일 정도 지나면 마실 수 있다.





금능인게



금능
밥상



깡이

조림

재료 | 깡이, 통마늘, 고추, 간장, 설탕, 생강, 고춧가루, 깨소금, 다진마늘

- 1 해감시킨 깡이를 기름에 튀겨낸다.
- 2 냄비에 분량의 양념을 넣고 끓이다 튀긴 깡이를 넣고 다시 끓인다.
- 3 고명으로 편마늘과 고추를 올려 한소끔 더 조리한다.

깡이

젓

재료 | 깡이, 통마늘, 고추, 간장, 설탕, 생강, 고춧가루, 깨소금, 다진마늘

- 1 분량의 재료를 넣고 양념장을 만든다
- 2 해감시킨 깡이에 양념장을 넣고 버무린다.
- 3 고명으로 편마늘과 고추를 넣고 버무린다.
- 4 현대식 깡이젓이다.

깡이

튀김

재료 | 깡이, 튀김가루, 카레가루, 식용유, 달걀

- 1 팬을 달군 후 식용유를 넣고 끓인다.
- 2 튀김가루와 카레가루, 달걀을 섞어 튀김옷을 만든다.
- 3 해감시킨 깡이에 튀김옷을 입혀 기름에 튀겨낸다.
- 4 바삭한 식감을 위해 식힌 튀김을 다시 한 번 튀겨낸다.



깡이가 아무리 금능마을에서 흔한 식재료라고 해도 매일매일 쉽게 깡이음식을 만들어 먹었던 것은 아니다. 깡이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기에, 아침부터 늦은 밤 까지 밭일, 바닷일에 묶여 살았던 사람들에게 깡이는 흔하지만 어쩌다 먹는 음식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한번 깡이음식을 만들게 되면 많이 만들어서 서로서로 나누어 먹었다. 다 어렵게 살았던 때라 옆집의 아침밥상, 점심밥상, 저녁밥상의 찬으로 무엇이 올랐는지 서로 알 정도로 허물없이 지내던 때였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 이제는 장마철이 되어도 금능 사람들 밥상에 깡이 반찬이 오르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없다. 다양한 식재료 속에서 깡이는 구하기 쉽지 않기에(물때에 맞춰 바다에 직접 내려가서 잡아야 하므로) 또는 손이 많이 가는 식재료이기에 점점 외면 받고 있다. 하지만 고유성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금능리만의 고유성, 금능리만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우리 어머니가 드셨던 깡이밥상, 우리 할머니가 만드셨던 깡이음식이 바로 금능리의 고유성을 지켜줄 수 있을 최고의 재산이지 않을까?

깡이튀김을 먹으면서 행복한 미소를 짓던 마을삼촌들, 어머니의 레시피를 이어받아 깡이음식을 해 주신 부녀회원님들, 깡이음식 재연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종류별로 조금씩 나눠 주던 인심, 이게 바로 금능리만의 정체성일 것이다. 오늘까지 대대로 이어온.. **사·인**

깡이
나누려 감수다

참고 | 아름다운 우리 향토음식, 두산백과,
한국전통지식포털-향토음식,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향토음식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요리 레시피 | 금능리 부녀회 제공

요리 재연 | 금능리부녀회 홍준희, 박경삼,
고희자, 양영자, 홍경하

깡이재료 | 금능리 임철호 제공

이 코너를 위해 도움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금능인

금능 옛집들

글·사진 | 안민승



금능 옛집의 정취는 바람의 시간을 버텨낸 인고의 흔적이다.

슬레이트 지붕을 이고 있는 70년대의 옛집들은

당시를 주도했던 새마을 운동의 여파를 증언하기도 하며,

통일된 구조하에 색색히 덧입혀진 지붕의 색깔들에서는 세월의 풍화작용을

되짚어보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금능인게



Gumnung Gallery



돌담과 돌집에선 우리네 어울렁하고 더울렁한 향토의 정겨움이 묻어나고

텃밭과 야자수, 선인장들과 어우러진 삶의 풍경들은

하나의 시대적 초상으로 우리곁에 자리잡는다.

금능 옛길을 다시 걸으며 그 다정한 얼굴들을 새롭게 마주하자면

분명 의인화된 미소로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망의 소곤거림을 들을 수 있을 터이다.





금능리

| 키 | 워 | 드 | 로 만나는 금능

글 | 양민숙 · 사진 | 양성혁

금능리,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선정

2020년 6월 3일 금능리(이장 김성수)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그동안 금능리는 마을의 문화공간인 ‘꿈차롱작은도서관’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 농림부 주관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문화복지 분야에서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해양수산부 공모사업도 마을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어촌의 특화자원과 연계해 제주만의 테마가 있는 마을 조성을 위해 기획됐고, 그동안 활동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5년 동안 진행될 ‘어촌분야 일반농산 어촌 개발사업’에는 총 98억원(국비 67억, 도비 39억, 자부담2억)이 지원된다. 이 사업을 통해 창작광장, 문화예술광장, 예술문화센터 조성, 꿈차롱도서관 증축 등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해수욕장 캠핑공원 조성, 꿈차롱 올레길 조성 등 어촌관광 수요 충족을 위한 기반시설과 관련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금능리 부녀회, 클린하우스 지킴이 활동

금능리 부녀회(회장 홍준희)는 2020년 9월 한 달 동안 마을 안에 있는 클린하우스 지킴이 활동을 전개했다. 이는 클린하우스에 지속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안타까워한 부녀회가 자발적으로 시범운영하고자 진행된 활동이었다. 부녀회원 35명이 참여하였으며, 2인 1조로 나뉘어 클린하우스 환경을 개선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줄이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김장김치로 훈훈한 정 나눔 활동 전개

2020년 12월 3일 금능리부녀회(회장 홍준희)는 마을 어르신 및 불우 이웃을 위한 김장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장행사에는 55명의 부녀회원들이 참석하여 김장과 밑반찬을 만들었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153명의 마을 어르신과 불우 이웃에게 김장과 밑반찬세트를 전달했다. 금능리부녀회는 해마다 김장행사를 개최하여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효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개관 10주년 행사 개최

2019년 12월 23일, 금능꿈차롱도서관(관장 김성수)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서는 10년간 활동 내용을 공유하였으며, 양민숙 초대관장에 대한 공로패 시상도 이루어졌다. 이날 금능리부녀회에서는 사업수익금 일천만원을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발전기금으로 기탁하였으며, 금능리청년회 또한 일백만원을 발전기금으로 기탁하였다.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은 금능리의 문화공간으로서 그동안 다양한 문화교육활동 및 인재양성 등의 활동을 진행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능리문화복지센터 준공

금능리문화복지센터가 준공이 되었다. 기존 금능리노인회와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이 있던 건물을 철거한 곳에 총 180평의 면적으로 2019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금능리노인회와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이 2020년 6월 10일과 2020년 7월 5일에 금능리문화복지센터에 나란히 입주했다. 앞으로 이곳에서 마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꿈차롱시인학교 운영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은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2020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꿈차롱시인학교 (교장 양민숙)'를 운영하였다. 성인시창작교실, 어린이시창작교실, 시토크콘서트, 어린이 시백일장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꿈차롱시인학교'는 도내의 유명시인 10명이 창작교실 강사로 참여하였다. 또한 지역주민, 어린이를 포함한 60여명이 수강하여 창작의 열기를 높였으며, 12월 23일 금능리를 테마로 하는 시집 발간도 진행된다.

금능리, 소리 드라이브스루 판매 성황

금능리(이장 김성수)는 2020년 4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 후원으로 금능리해수욕장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금능 뿔소라 꼬치구이 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준비된 물량이 완판 됨과 동시에, 판로가 막힌 금능리 해녀들 소라에 대해 판매 가능성을 발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칸 책장 프로젝트 진행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은 '금능리문화복지센터'로 입주하여, 재개관을 하면서 '한 칸 책장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는 도서관 서가를 후원자의 이름으로 한 칸씩 만든다는 취지인데, 책장 한 칸당 10만원의 후원금을 받고 있다. 이번 '한 칸 책장 프로젝트'에는 도서관 이용자 및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총 참여자는 56명이다.

금능마을의 시간 사진전 개최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은 재개관과 더불어 '금능마을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가졌다. 이번 사진전에는 금능리민 양성희, 한명희, 김순일 씨 세 명의 사진작가가 참여하였으며, 각 4점씩 출품하여 금능리의 다양한 모습을 담았다. 사진전에 참여한 세 사람은 현재 마을소식지 '금능인'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금능리의 다양한 행사에서 재능기부를 통한 마을 사랑 실천을 나누고 있다. '금능마을의 시간' 사진전은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에서 2021년 상반기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금능인

2020년 금능리 마을행사 일정표

정리 | 금능리

일정	행사명	주관
1월	• 농업옹수 정기총회	수리계
	• 마을정기총회	금능리
2월	• 능향원 정비	청,부녀회
	• 마을제 봉행	금능리
	• 어촌계 정기총회	어촌계
3월		
4월	• 금능리분화복지센터 준공	금능리
	• 소라꼬치 드라이브스루	청,부녀회
5월	• 어르신 쌀나눔행사 (어버이날행사 대체)	청,부녀회
	• 어촌테마마을공모 심사	금능리
6월	• 어촌테마마을공모 선정	금능리
	• 마을역량강화교육 개강	금능리 (어촌특화지원센터)
	• 금능리경로당 이사	노인회
7월	• 해수욕장개장 고사 (안전지원제)	금능리
	•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이사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8월	• 마을역량강화교육 선진지견학	금능리 (어촌특화지원센터)
	• 마을역량강화교육 종강	금능리 (어촌특화지원센터)
9월	• 마을주민 쌀나눔행사 (마을체육대회 대체)	청,부녀회
	• 클린하우스지킴이활동	부녀회
10월	• 마을환경정비	청년회
11월		
12월	• 감장나눔행사	부녀회
	• 어르신 반찬나눔행사(경로잔치 대체)	부녀회



금능스캐치



2020년 꿈차롱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일정표

정리 | 편집부

일정	프로그램명 및 세부내용	
1월	• 소근소근 낭독회 (매주 월요일 19-21시)	
2월	• 소근소근 낭독회 (매주 월요일 19-21시)	
6월	• 소근소근 낭독회 (매주 월요일 19-21시)	• 오카리나교실 (매주 수요일 19-21시)
	• 어린이 시창작교실 (매주 금요일 19-21시)	• 성인 시창작교실 (양영길 시인, 8회, 19-21시)
	• 북콘서트 (고성기 시인, 둘째주 일요일 16시)	
7월	• 오카리나교실 (매주 수요일 19-21시)	• 어린이 시창작교실 (매주 금요일 19-21시)
	• 성인 시창작교실 (오은 시인, 5회, 19-21시)	• 북콘서트 (현택훈 · 오광석 시인, 첫째주 일요일 16시)
	• 북적북적 책친구 (매주 토요일 16-18시)	
8월	• 오카리나교실 (매주 수요일 19-21시)	• 어린이 시창작교실 (매주 목요일 19-21시)
	• 성인 시창작교실 (안도현 시인, 5회, 19-21시)	• 북콘서트 (김영란 시인, 둘째주 일요일 16시)
	• 북콘서트 (북효근 시인, 셋째주 월요일 19시)	• 북적북적 책친구 (매주 화·토요일 16-18시)
9월	• 오카리나교실 (매주 화요일 19-21시)	• 어린이 시창작교실 (매주 목요일 19-21시)
	• 성인 시창작교실 (문태준 시인, 5회, 19-21시)	• 북콘서트 (김병심 · 강영란 시인, 셋째주 일요일 16시)
	• 북적북적 책친구 (매주 토요일 16-18시)	
10월	• 어린이 시창작교실 (매주 목요일 19-21시)	• 성인 시창작교실 (최금진 시인, 8회, 19-21시)
	• 성인 시창작교실 (변종태 시인, 8회, 19-21시)	• 북콘서트 (강덕환 시인, 넷째주 일요일 16시)
	• 북적북적 책친구 (매주 목·토요일 16-18시)	
11월	• 어린이 시창작교실 (매주 목요일 19-21시)	• 성인 시창작교실 (윤성택 시인, 5회, 19-21시)
	• 성인 시창작교실 (양전형 시인, 8회, 19-21시)	• 북콘서트 (김진숙 시인, 다섯째주 일요일 16시)
	• 북적북적 책친구 (매주 목·토요일 16-18시)	• 꿈차롱동아리 잇들 독서토론 (매주 금요일 19-21시)
12월	• 어린이 시창작교실 (매주 목요일 19-21시)	• 꿈차롱동아리 잇들 독서토론 (매주 금요일 19-21시)
	• 꿈바당 인권도서관 인형극 (첫째주 일요일 16시)	• 꿈차롱시인학교 결과발표회 및 겨울이야기
	• 『금능인』 3호 발간	

금능리 조직도

제공 | 금능리

금능인

이장
김성수

노인회장
박용진

운영위원장
김성수

감사
양승우

청년회장
김남규

부위원장
송문철

감사
조미혜

부녀회장
홍준희

이사무장
노진영

어촌계장
문영철

운영위원

문영남 · 고석주 · 양익수 · 고창균 · 김성진 · 박윤성 · 홍한민

자조동장
양영재

자립동장
양제우

협동동장
고남호

근로동장
김정욱



금능스케치



금능마을 지도

그림 | 안민승



편집후기

금능사람, 금능마을, 금능의 이야기로만 꾸며진 『금능인 3호』가 발간되어 금능마을 리민의 한사람으로서 넘 뽐뽐합니다. 금능 마을 구석구석 이야기들을 찾아다니며 『금능인 3호』를 통해 금능 마을을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금능인 3호』를 통해 금능리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 이주민 모두 품어 안을 수 있는 길잡이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집위원 이윤영

『금능인3호』작업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커다란 다라에 가득 담겨있던 ‘깁이’의 모습이다. 금능리에서 서식하는 깁이를 전부 잡아 온 느낌이었다. 깁이는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소주로 씻고 물로 행구고의 과정을 몇 시간 하고 나서야 요리 재료로서 인정을 받는 몸이 되었다. 깁이튀김부터 깁이죽, 깁이국, 깁이장 등 말로만 듣던 깁이요리가 하나씩 만들어졌다. 『금능인 3호』 ‘깁이’ 지면을 위해 너무 애써주신 마을 상조, 언니들의 마음이 울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가장 감사한 모습으로 떠오른다. 함박웃음을 짓던 그분들이 계시기에 『금능인 3호』는 무사히 세상에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한다. 늘 그렇지만 모두 털고 나면 후련하기보다 아쉬움이 남는다. 부족한 것만 보이고, 좀 더 정성을 들이지 못한 부분이 클로즈업된다. 오늘도 반성 한 응금과 1년 동안 함께 애써준 편집위원님들께 고마운 마음 전한다.

편집위원장 양민숙

『금능인 2호』에 내가 아닌 나의 사진만 참여했었다. 3호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게 되어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잘 할 수 있을까? 책을 만들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행복감을 느꼈다. 이주해 온 첫해부터 나는 금능인이었지만 나를 금능인으로 바라봐줬을까? 이제는 그런 생각 필요없는 그저 나는 금능인이다.

편집위원 한명희

개인적으로 금능인을 3번째 준비하면서 낯선 이주민에서 친근한 금능주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능인을 편집하면서 우리 마을과 이웃 주민의 삶과 역사를 진지하게 알게되고 공감하게되는 좋은 기회가 되고, 금능인을 읽는 구독자들에게 금능마을과 금능 주민의 삶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잘 전달되기를 기원합니다.

편집위원 김순일

어느새 한 해가 금방 가버리네요. 해가 바뀌면서 새로운다짐으로 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금새 가버리네요. 금능인으로써 올 해는 활동도 많이 못하듯 미안할 따름이네요. 내년에는 어려운 시기를 벗어난 멋진 금능인으로 볼게요.

편집위원 양성혁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여느 해와는 다른 한 해였습니다. 얼굴을 마주보며 눈빛을 맞출 수 없는 시간이 계속 길어졌어요. 그래서 더욱 『금능인 3호』의 탄생이 뜻깊습니다. 가장 오래된 비대면의 도구인 책을 통해 소통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금능사람의 글, 금능사람의 사진, 그리고 금능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이야기가 알차게 담겨 있는 『금능인 3호』 속으로 모두 들어오세요.

편집위원 홍임정